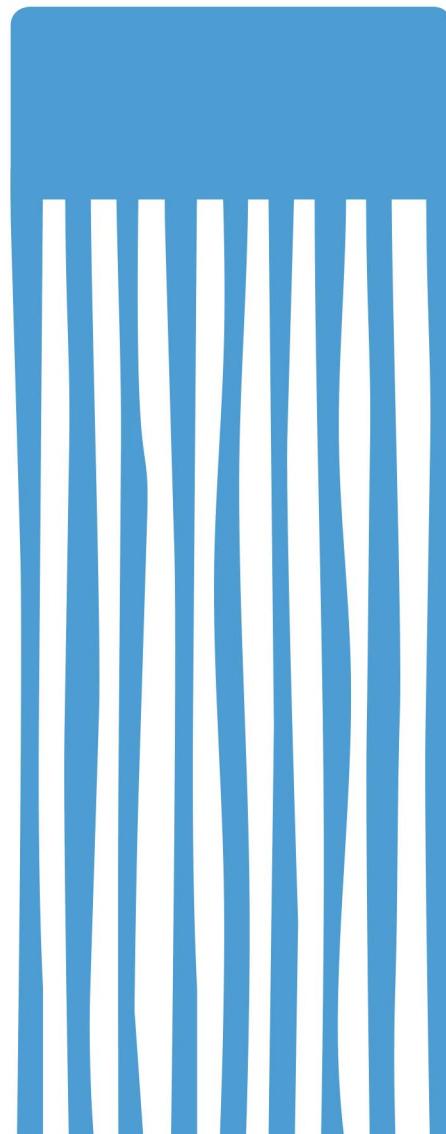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 고등영어

D



정답 및 해설

천재  
—  
이재영

# 07 Science Everywhere

##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08

01 ③

02 (1) pressure (2) flight (3) gravity (4) voltage

03 ② 04 ①

01 ③은 ‘평평하게 : 평평하지 않게’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비율 ② 정지한 ④ 끊임없이 ⑤ 정확한

02 (1) pressure(압력): 누군가가 무언가를 누를 때 만들어 내는 힘

(2) flight(비행): 공중에서 날아가는 행위나 과정

(3) gravity(중력):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특히 지면으로 물체가 떨어지게 만드는 힘

(4) voltage(전압): 볼트로 측정되는 전류의 양

03 drag는 ‘항력; 끌다; 느릿하게 진행되다’라는 뜻을 가진다.

- 수천 마리의 거북이 몸을 해변으로 이끌어 모래에서 알을 낳는다.

- 기술자들은 그들이 새로운 비행기를 설계할 때 항상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① 찌르다; 떠밀다 ③ 누르다 ④ 운송하다 ⑥ 견뎌내다

04 <보기>와 ①의 lift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열 번 들어 올리고 그런 후에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① 그 남자는 그의 아픈 개를 그의 차 안으로 들어 올리려고 노력했다.

② 그 예시들은 어떻게 이 움직임이 양력을 만드는지를 보여 준다.

③ 나는 그 승강기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찬 때문에 탈 수 없었다.

④ 이 승강기는 지금 고장 났어요. 왼쪽의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⑤ 양력은 비행기 무게와 직접적으로 반대되며 비행기를 대기 중에 유지시키는 힘이다.

## C 교과서 핵심 대화

p.009~010

01 ②, ⑤ 02 ③

01 ②⑤는 ‘나는 그 남자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뜻으로 궁금한 것에 대해 묻는 표현이다.

① 그 남자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니?

③ 나는 그 남자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모른다.

④ 나는 그 남자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다.

02 B가 A의 말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빙간에는 A의 의견을 표현하는 말이 적절하다.

①②④⑤는 ‘내 생각에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③은 ‘그녀’의 생각을 나타내므로 빙간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A: 내 생각에 우리의 과학 숙제는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B: 네 말에 동의해. 나는 우리가 그것을 할 더 많은 시간이 있기를 바라.

## C 교과서 기타 대화

p.011

01 F 02 T

01 그 남자는 어떻게 높은 건물들이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02 Jamie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보여 주는 특별한 앱을 가지고 있다.

02 · 현재(OI)

##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12

01 ① 02 ④ 03 ④

01 밑줄 친 부분과 ①은 ‘나는 왜 우리가 우주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라는 의미이다.

② 나는 왜 우리가 우주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를 배울 것이다.

③ 내가 왜 우리가 우주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를 아는가?

④ 나는 왜 우리가 우주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다.

⑤ 나는 왜 우리가 우주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02 ‘여기는 터키의 카파도키아야. 내 여동생이 지금 터키를 여행하는 중인데 나에게 이 엽서를 보냈어.’라는 여자의 말에 남자가 ‘내 생각에는 그녀가 열기구를 타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중인거 같아.’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①②③⑤는 ‘내 생각에는’이라는 뜻이며, ④는 ‘그는 아마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이므로 빙간에 적절하지 않다.

03 택시와 지하철 중에 어느 것이 빠른지 묻는 여자의 말에 ‘© 내가 좀 볼게. 내 생각에는 지하철이 더 빠를 거 같아. 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어. – ④ 정말? 그걸 어떻게 아니? – ⑤ 나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앱이 있거든. 이 앱은 GPS를 사용해서 정보가 매우 정확해. – ⑥ 그거 유용하구나. 나도 그 앱을 다운로드 해야겠어.’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p.013~014

01 ④

02 Billy stared out of the window with his arms crossed.

01 수식을 받는 앞의 명사가 동작을 하는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helping이 적절하다.

• 그녀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돋는 간호사이다.

•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돋는 Peter는 이달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02 ‘~가 …한 채로’는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cross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15

01 (1) watching (2) expected (3) travelling (4) invited

02 ①

03 (1) The city forgotten by everyone was so beautiful before the earthquake.

(2) Parents working full time have no time to play with their children.

(3) The church built 10 years ago was destroyed by the war.

(4) My sister Jenny studying at London Art School draws lovely pictures.

01 (1) 여자가 우리를 보는 것이므로 능동의 현재분사 watching이 적절하다.

나는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2) 프로젝트는 많은 수익이 나도록 기대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 expected가 적절하다.

나는 우리 팀 구성원들 모두가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 기대했던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3) 학생들이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므로 능동의 현재분사 travelling이 적절하다.

유럽을 여행하는 중인 그 학생들은 졸업 파티에 도착할 것이다.

(4) 나의 오빠가 초대를 받은 것이므로 수동의 과거분사 invited가 적절하다.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나의 오빠는 늦을 것이다.

02 ① 주어인 The girl과 분사가 능동의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wear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② 반지가 '주어진' 것으로 명사와 분사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gave를 giv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Amy는 6년 전에 그녀의 어머니께서 주신 반지를 잊어버렸다.  
③ 소포가 '보내진' 것으로 명사와 분사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sending을 sent로 고쳐 써야 한다.  
내 상사가 보낸 소포는 딱 제때에 도착했다.  
④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명사와 분사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solving을 solved로 고쳐 써야 한다.  
우리는 Jim에 의해서 해결된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⑤ Vicky가 음악을 '가르치는' 것으로 명사와 분사가 능동의 관계이므로 teaches를 teach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Vicky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다.

- 03 (1) 그 도시가 '잊혀진' 것이므로 과거분사 forgott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모두에게 잊혀진 그 도시는 그 지진 이전에는 매우 아름다웠다.  
(2) 부모님들이 '일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wor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상근으로 일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다.  
(3) 교회가 '지어진' 것이므로 과거분사 built로 고쳐 써야 한다.  
10년 전에 지어진 그 교회는 전쟁에 의해 파괴되었다.  
(4) Jenny가 '공부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study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런던 아트 스쿨에서 공부하는 나의 언니 Jenny는 사랑스러운 그림들을 그린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16

- 01 (1) shaking (2) full (3) waiting (4) starting  
02 (1) The dog was barking at her with its tail raised.  
(2) I kept eating food with my mouth full.  
(3) Chloe is standing on the beach with her hair blowing in the wind.  
(4) The soldiers took a break with guns on their shoulders.

03 ②

- 01 (1)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shaking이 적절하다.  
Frank는 그의 다리를 떨면서 책을 읽는 중이다.  
(2) with 분사구문에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쓸 수 있고, 문맥상 '가득 찬'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full이 적절하다.  
그 가수의 콘서트는 그의 팬들로 가득 찬 채 도쿄에서 열렸다.  
(3)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waiting이 적절하다.  
내가 어제 가족들과 함께 본 그 식당은 기다리는 손님들로 정신 없었다.  
(4) 「with + 명사 + 분사」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starting이 적절하다.  
그들은 그 영화가 시작하는 중일 때 그 영화관에 들어올 것이다.
- 02 (1) 「~가 …한 채로」는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rais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계속 ~하다'는 「keep + 동명사」로 표현하고, 「with + 목적어 + 목적격 보어」의 형태에서 목적격보어로 형용사를 쓸 수 있으므로 full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3)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blow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휴식을 취하다'는 take a break로 표현하고, 과거시제이므로 took으로 써야 한다.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의 형태에서 목적격보어로 전치사구를 쓸 수 있으므로 '어깨에 맨'이라는 의미로 전치사구 on their shoulders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3 문이 그에 의해 잠긴 것이므로 목적격보어 lock을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lock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그녀는 문을 열어놓은 채로 그 장소를 떠났다.  
③ 그 군인은 다리에 피를 흘리는 채로 문을 두드렸다.  
④ 나는 잊어버렸던 내 지갑을 모든 것이 그 안에 든 채로 그 카페에서 찾았다.  
⑤ 나는 내 상사를 동반한 채 그 남자를 만나기로 되어있었다.

## R 교과서 기타 지문

p.021

01 F 02 T

- 01 그 여자는 <아이언 맨> 영화들이 얼마나 재밌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02 글쓴이는 왜 새들이 전깃줄 위에서 감전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22~023

- 01 what makes a kite fly 02 have in common  
03 depend on[rest on] 04 involved 05 flowing  
06 which 07 rise 08 pushing 09 is  
10 이 네 가지 힘을 염두에 두고 11 in order that 12 wings  
13 ~한 결과를 낳다 14 traveling  
15 as it creates lift 16 works 17 균등하게  
18 The other 19 blown 20 정지된 21 flies  
22 fly 23 그것을 여러분의 뒤쪽에 둔 채로 24 in which  
25 running 26 pulling 27 flying 28 Likewise  
29 flown 30 is 31 Unlike 32 What  
33 passes 34 to turn  
35 But for[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36 Furthermore[Moreover, Besides, Plus, What's more]  
37 in accordance with 38 interesting 39 작용하는  
40 fly  
41 by adding not just[only] some weight but also drag to its lower end  
42 allowing

##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24~035

-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1) diameter (2) oppose (3) proportion (4) gravity  
06 spin 07 ④ 08 ① 09 ④  
10 I'm curious about whether such a suit would be possible in real life  
11 ③ 12 ⑤ 13 ④  
14 the first successful manned flight technology 15 ⑤ 16 ④  
17 roar → roaring 18 ④ 19 ② 20 (1) using (2) ○  
21 Jake began to paint on the ceiling of the building with his legs shaking so hard.  
22 ① 23 ⑤ 24 ④  
25 (1) with the singer singing and dancing  
(2) with my eyes covered by hands  
26 (1) locating → located (2) giving → given 27 ⑤ 28 ③  
29 ⑤ 30 ② 31 the wings 32 traveling  
33 ③  
34 This is because the air which[that] is blown out over the top of the paper moves quickly  
35 ④ 36 ③  
37 Once the kite gets up in the sky where the wind is strong enough  
38 ③ 39 ② 40 ⑧ to turn ⑤ drag ⑦ made 41 ④  
42 and it allows it to go high 43 are → is 44 ③ 45 ⑤

- 01 ④는 '형용사 : 부사'의 관계이고, 나머지는 반의어 관계이다.  
① 선조, 조상 : 자손, 후손 ② 위쪽으로 : 아래쪽으로

- ③ 반대하다 : 지지하다 ④ 전기의 : 전기적으로  
 ⑤ 안정감 : 불안정
- 02** ‘비행기나 배 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기 위해 추력이나 힘을 생산하는 퍼뜨리는 날개와 함께 회전하는 중심축으로 구성된 장치’는 propeller(프로펠러)에 해당하는 영어풀이이다. flight는 ‘비행’이라는 의미이므로 영어풀이는 a journey through air or space in a vehicle such as a plane(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대기나 우주를 통과하는 여행)이 적절하다.
- ① 있음직하지 않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 ② 둘러싸다: 무언가의 주위에 모든 곳에 존재하다
  - ③ 압력: 누르는 행동이나 놀려지는 과정
  - ④ 전압: 볼트로 측정되는, 전류에서 전원의 양
- 03** have in common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이다.
- ① 그녀는 은밀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 ② 그 도시로 가는 길은 이 시간쯤에는 정체될 수도 있다.
  - ③ 물이 배관을 통해 내 육실의 수도꼭지로 이동하지 않는다.
  - ④ 만약 당신이 그 성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다리 밑으로 통과해야 한다.
  - 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Jake와 나는 우리 나이 또래의 다른 소년들과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 04** keep in mind는 ‘~을 명심하다’라는 뜻이므로 remember와 바꿔 쓸 수 있다.  
 당신이 얻는 무엇이든지 당신이 한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① 그 결과 ~이다 ② ~에 의존하다 ③ ~을 통과하다 ⑥ 감전되다
- 05** (1)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 또는 그 선의 길이: 지름(diameter)  
 (2) 무언가나 누군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못마땅해 하다: 반대하다(oppose)  
 (3) 전체에서 부분이나 나눈 둑인 어떤 것의 양: 비율(proportion)  
 (4)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려는 힘: 중력(gravity)
- 06** spin은 ‘빙빙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레트 선수들은 조용히 그 돌림판이 회전하는 것을 지켜봤다.
  - 나는 마치 회전목마에 있는 것처럼 그 방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 07** withstand는 ‘견디다’라는 의미로 bear, stand, tolerate, put up with와 바꿔 쓸 수 있다. obtain은 ‘얻다, 구하다’라는 의미이다.  
 최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다.
- 08** It seems to me that ~은 ‘내가 보기에 ~인 것 같다’는 의미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므로 밑줄 친 부분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견 표현하기’이다.
- 09** 높은 건물들이 강한 바람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궁금하다는 맥락이므로 weak(약한)를 strong(강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0** ‘~에 대해서 궁금해’라는 의미는 I'm curious about ~을 활용할 수 있고, ‘~인지’는 명사절 접속사 whether를 사용하여 영작한다.
- 11** 영화 <아이언 맨>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옷처럼 입으면 날 수 있는 제트팩이 신문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므로 이 대화의 주제로는 ③ ‘신문에 나온 제트팩’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새로운 프로펠러 구입하기
  - ②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
  - ④ 재미있는 <아이언 맨> 영화 보기
  - ⑤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제트 프로펠러
- 12** 열기구가 1700년대의 교통수단이었다는 여자의 말에 흥미롭다고 대답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terrifying을 interesting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3** 빙칸 뒤에 그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빙칸에는 ④ ‘내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하다.
- ① 나는 ~라고 생각하지 않아
  - ② 나는 ~을 확신하지 않아
  - ③ 네가 알다시피
  - ⑤ 그들이 보기에는
- 14** ‘유인의’라는 의미는 manned로 표현한다.
- 15** 빙칸 뒤에 ‘그건 우주에 공기가 없기 때문이야.’라며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빙칸에는 궁금증을 표현하는 ⑤ ‘나는 왜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 궁금해.’가 적절하다.
- ① 나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궁금해.  
 ② 너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니?  
 ③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니?  
 ④ 우주에 가 본 적이 있니?
- 16** 앞에 나온 명사와 동작이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written이 적절하다.
- 나는 그 책에 적힌 수수께끼들을 아버지와 함께 풀었다.
  - 우리는 고대 영어로 쓴 그 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17**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roar를 현재분사 roa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의 근처에 으르렁거리는 호랑이가 있어서 그녀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 18**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using을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us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Kevin은 그의 아버지께 받은 그 책을 찾아서 기뻤다.
  - ②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Sue는 점식 식사 후에 커피를 샀다.
  - ③ 내 여동생이 만든 청바지는 내가 만든 치마의 2배 가격에 팔렸다.
  - ④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한자는 600년 전에 공통언어였다.
  - ⑤ 안경을 쓴 그 소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 남동생이다.
- 19** ⑥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므로 sang을 현재분사 sing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⑦ 어떠한 판단도 개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involving을 과거분사 involv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⑧ 그의 손이 곰 인형을 잡고 있는 것이므로 hold를 현재분사 hold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⑨ Brian은 항상 그의 다리를 뻗은 채로 컴퓨터 게임을 한다.
  - ⑩ 내 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점심을 손에 들고 공원으로 간다.
- 20** (1) 훌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시회이므로 used를 현재분사 u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훌로그램을 이용한 그 전시회는 매우 인상 깊어서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 (2) 그의 형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sitt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바닥에 앉아 있는 그의 형은 전기 장치를 만드는 중이다.
- 2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을 이용하고, 명사(his legs)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shake의 현재분사인 shaking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Jake는 그의 다리를 심하게 떨면서 건물의 천장을 페인트칠하기 시작했다.
- 22** 그 비디오는 Ben에 의해 연출된 것이므로 directing을 과거분사 direct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⑪ Vanessa는 정부가 설립한 과학 박물관에 갔다.
  - ⑫ 내 남동생이 고쳐 준 내 차의 엔진은 다시 고장 났다.
  - ⑬ 영국에서 온 Paul은 중국에서 그의 석사학위를 마쳤다.
  - ⑭ 우리 어머니가 디자인하신 그 허리띠는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 23** • 나는 내 손을 Henry의 어깨에 올린 채로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 (전치사 on)
-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길이 깨끗하다. (현재분사 picking)
  - 새 책이 출간되어서 출판사의 직원들이 파티를 했다. (과거분사 released)
  -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전문가들에 의해 관리된 나무들과 잔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과거분사 managed)
- 24** held는 과거분사로 the event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which[that]) + be동사」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시제에 맞게 과거형이 되어야 하고, 선행사(the event)가 단수이므로 단수동사인 was가 적절하다.  
 Frank는 그의 형이 개최한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 25**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singing and dancing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cover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6** (1) 쇼핑몰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locating을 과거분사 located로 고쳐 써야 한다.  
 나는 금요일마다 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쇼핑몰에 간다.
- (2) 프로젝트는 담임 선생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giving을 과거분사

- giv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Julia는 그녀의 담임 선생님에 의해 주어진 그녀의 프로젝트를 끝낼 수 없었다.
- 27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turning을 과거분사 turn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입이 가득 찬 채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걷고 있었다.
  - ③ 그녀는 다리를 꼰 채로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 ④ 그는 강아지가 그를 따라오는 채로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 ⑤ 손전등을 켜 채, 그 탐험가는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 28 양력은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고 중력은 지속적으로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으므로 양력이 중력보다 크면 비행기는 떠오를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all(추락하다)을 rise(떠오르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9 주어진 문장은 '만약 추력이 항력보다 더 크면 비행기는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뜻으로 추력과 항력에 대해 설명한 문장 다음인 ⑥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A) '비행과 관련이 된'이라는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involved가 적절하다.
  - (B) 선행사 weight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다.
  - (C) 사역동사(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므로 fly가 적절하다.
- 31 대명사 them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the wings를 가리킨다.
- 32 공기는 이동하는 것이므로 air를 수식하는 traveled를 현재분사 travel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3 주어진 문장은 '띠의 한쪽 끝을 잡고 입술 가까이 대고, 서서히 종이 위로 균등하게 바람을 불어 준다.'라는 뜻으로 종이 띠를 자른 다음에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4 과거분사(blown)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which[that] is를 포함하여 쓸 수 있다.
- 35 연은 사람에 의해 날려지는 것이므로 flying을 과거분사 flow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6 연이 날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양력과 중력의 양이 같아야 한다는 흐름이므로 unbalance(균형을 깨뜨리다)를 balance(균형을 잡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7 '일단 ~하면'은 접속사 once로 표현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the sky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re로 두 문장을 연결하며 enough는 형용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38 방패연은 다른 나라의 연과 달리 중앙에 연의 가로 길이의 절반이 지름인 원형 구멍이 있으며, 이 구멍은 연이 하늘을 날 때 공기를 조절한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빙칸에는 ③ '공기를 조절하다'가 적절하다.
- ① 공기를 깨끗이 하다
  - ② 하늘에서 날다
  - ④ 공기를 신선하게 하다
  - ⑤ 공기를 오염시키다
- 39 주어진 문장은 '게다가, 이 연은 강한 바람에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 연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내용 뒤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0 ⑧ 「allow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이므로 turning을 to tur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⑨ 「not just A but also B」 구조에서 A와 B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므로 some weight와 같은 명사(구)를 써야 한다. 따라서 to drag를 drag로 고쳐 써야 한다.
- ⑩ 앞에 나온 과거동사 knew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making을 made로 고쳐 써야 한다.
- 41 선행사가 사물이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 42 분사구문이므로 and로 시작하는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 43 유도부사 there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형태로 주어가 voltage difference로 단수이므로 are를 단수동사인 is로 고쳐 써야 한다.
- 44 전깃줄에 걸린 연이나 풍선의 줄을 만진다면 전기가 흘러 감전될 수 있다는 흐름이므로 빙칸에는 ③ '심각한 감전'이 가장 적절하다.
- ⑪ 심각한 문제
- ② 안전한 상황  
④ 충격적인 발표  
⑤ 편안한 상황
- 45 전깃줄 위의 새가 감전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새들, 연들, 그리고 전깃줄'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연들과 풍선들
  - ② 심각한 전기적 충격
  - ③ 고목 위의 새들
  - ④ 줄을 건드리지 않는 새들

##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36~049

- |   |                       |                           |      |             |
|---|-----------------------|---------------------------|------|-------------|
| 01 ⑤  | 02 in accordance with | 03 ③                      | 04 ① | 05 ⑤        |
| 06 (g)avity   | 07 ④                  | 08 through                | 09 ① | 10 ②        |
| 11 ③, ⑤   | 12 ④                  | 13 ③, ⑤                   |      |             |
| 14 I'm curious about why it's blowing so hard.  |                       | 15 ①                      | 16 ② |             |
| 17 ④  | 18 ①, ⑤               |                           |      |             |
| 19 (1) Nicholas lay on the couch with his eyes fixed on the ceiling.<br>(2) The light on the ceiling selected by the famous interior designer is expensive. |                       |                           |      |             |
| 20 (1) taking (2) sitting (3) carried   |                       |                           |      |             |
| 21 Hugo managed to finish the project with his birthday party delayed.  |                       |                           |      |             |
| 22 ④  | 23 (1) living (2) ○   | 24 ⑤                      |      |             |
| 25 (1) laid (2) raising (3) followed  | 26 ⑤                  | 27 ④                      | 28 ⑤ |             |
| 29 ⑤  |                       |                           |      |             |
| 30 Opposed to that force is drag, which is the air pushing the airplane back.   |                       |                           |      |             |
| 31 ③  | 32 ③                  | 33 as it creates lift     |      |             |
| 34 You can see for yourself how the force of lift works.  |                       |                           |      |             |
| 35 why → because  | 36 ①                  | 37 ⑧ where ⑥ pulling ⑦ is |      |             |
| 38 ④  | 39 ⑤                  |                           |      |             |
| 40 Without the hole, it would not be easy to control.   |                       |                           |      |             |
| 41 ⑤  | 42 ③                  | 43 ⑤                      | 44 ⑤ | 45 the bird |

- 01 ⑧ 한 면에서 다른 면까지 무언가를 가로지르는 거리: 너비, 폭(width)
- ⑥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어떤 것이 서로 대화하거나 반응하는 상황: 상호 작용(interaction)
- ⑦ 단단하고 속이 빈 줄기를 가진 키가 큰 열대의 풀: 대나무(bamboo)
- ⑧ 평평하거나 균일한 표면 또는 선을 나타내기 위해: 평평하게(evenly)
- 02 in accordance with: ~에 부합되게
- 03 최상의 팀워크의 경우 아주 생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흐름이므로 '~이 원인이다'라는 뜻의 result from을 '그 결과 ~이다'라는 의미의 result in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그 창문을 통과하는 바람은 엄청나게 차갑다. (flow through: ~을 통과하다)
  - ② 당신이 그 케이크를 위해 사용했던 것은 그 비밀 조리법에 부합한다. (in accordance with: ~에 부합되게)
  - ④ 네가 수학 시험을 치기 전에 그 수학 문제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keep in mind: ~을 명심하다)
  - ⑤ 나는 감전되었지만 해를 입지 않고 깨어난 한 남자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봤다. (get shocked: 감전되다)
- 04 equal은 '동등한, 맞먹는'이라는 뜻으로 equivalent와 바꿔 쓸 수 있다.
- Jason의 새 가방의 가격은 그의 오래된 차와 맞먹는다.
- ② ~조차도, 평평한 ③ 더해진 ④ 날개가 있는 ⑤ 평평하지 않은
- 05 tension은 '긴장감; 장력'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 나는 내 오빠들 사이에 많은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물방울은 표면 장력 때문에 서로 붙는다.

- ① 압력 ② 전문가 ③ 비행 ④ 양력
- 06** gravity(중력):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특히 지면으로 물체가 떨어지게 만드는 힘
- 07** <보기>와 ④의 thrust는 ‘떠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내 뒤에서 뛰어오던 남자가 나를 벽 쪽으로 밀치며 지나갔다.
- ① 그녀는 두 손을 호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 ② 요점은 우리가 그 사업을 위해서는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③ 그 차의 엔진은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다.
  - ④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던 그 남자는 한 소년에 의해서 떠밀렸다.
  - ⑤ 그 발표자의 요지는 법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 08** travel through: ~을 통해 이동하다
- flow through: ~을 통과하다
- 음파는 진공을 통과할 수 없다.
  - 전기는 거대한 송전선을 통과한다.
- 09** 영화 속 우주에서는 우주선이 날아갈 때 큰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 우주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공상 과학 영화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흐름이므로 methods(방법들)를 mistakes(실수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0** 빙칸 뒤에 ‘그건 우주에 공기가 없기 때문이야. 소리는 전달해주는 물체가 필요하거든.’이라고 대답하므로 빙칸에는 ② ‘왜 우주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왜 우주에서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 ③ 왜 우주에서 우리가 일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 ④ 왜 지구에서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 ⑤ 왜 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지
- 11** 빙칸 뒤에 ‘아마 가까운 미래에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이 이어지므로 빙칸에는 ‘나는 그런 옷이 실제로 가능하지 궁금해’라는 뜻을 나타내는 ③⑤가 적절하다.
- ① 나는 실제로 누가 그런 옷을 살지 궁금해
  - ② 나는 우리가 어디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궁금해
  - ④ 나는 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불가능한지 궁금해
- 12** 영화 <아이언 맨>에 나온 것처럼 입으면 날 수 있는 옷이 개발되었고,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나는 사람에 대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대화의 목적으로는 ④ ‘흥미로운 기사를 공유하기 위해’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좋은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 ② 새로운 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 ③ 좋은 뉴스를 위해 기부하기 위해
  - ⑤ 새로운 물질을 광고하기 위해
- 13** 터키를 여행하고 있는 여자의 고모가 보내주신 엽서를 보며 열기구에 관해 대화하는 내용으로 남자가 ‘너희 고모가 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③ ‘그들은 ~라고 생각한다’와 ⑤ ‘~은 불가능하다’는 빙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다.
- 14** ‘나는 ~에 대해 궁금하다’는 I’m curious about ~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15** 빙칸 뒤에 남자가 ‘사람들이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이것은 바람이 좀 더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줘.’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빙칸에는 ① ‘어떻게 높은 건물이 강한 바람을 견디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어떻게 낮은 건물이 강한 바람을 견디는지
  - ③ 왜 낮은 건물이 강한 바람을 견디는지
  - ④ 왜 높은 건물이 강한 바람을 견뎌야만 하는지
  - ⑤ 언제 높은 건물이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지
- 16** 집은 지어지고, 수리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분사 built와 fixed가 적절하다.
- 나의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50년 전에 지으신 빨간 집에 살고 계셨다. 그 집이 막 지어졌을 때, 나의 아버지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정원에 묘목을 심으셨다. 나의 개 Max의 집 옆에 있는 그 나무는 지금 그 집만큼 키가 크게 자랐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이유로 작년에 수리한 그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셨다. 지금 우리는 모두 그 빨간 집에서 그 오래된 나무 그리고 나의 개와 함께 살고 있다.
- 17** ④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turning을 turn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⑤ Jessica는 인형에게 한복을 입힌 채로 집에 가는 중이었다.
- ⑥ 가이드가 길을 안내해줘서 그 여행은 매우 안전하다.
  - ⑦ 그 축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불려지면서 마무리 됐다.
  - ⑧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우리는 깜짝 놀랐다.
- 18** 이메일은 쓰이는 것이므로 과거분사 written이 적절하고, email과 written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인 that[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이다. 내가 쓴 그 이메일은 우연히 그 수다스러운 소년에게 전송되었다.
- 19**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fixing을 과거분사 fixed로 고쳐 써야 한다.
- Nicholas는 눈을 청장에 고정한 채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 (2) 전등은 디자이너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과거분사 selected로 고쳐 써야 한다.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선택한 천장의 그 전등은 가격이 비싸다.
- 20** (1) Jack이 그의 아기 Edward를 돌보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taking이 적절하다. 그의 아기 Edward를 돌보는 Jack은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길 원한다.
- (2) 농구팀이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으로 현재분사 sitting이 적절하다. 우리의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있는 농구팀은 작년 경기에서 우승을 했다.
  - (3) 고양이는 젊은 여자에 의해 옮겨지는 것으로 과거분사 carried가 적절하다. 젊은 여자에 의해 옮겨지는 예쁜 아기 고양이는 밤을 다쳤다.
- 21** ‘가까스로 ~하다’는 「manage + to부정사」로 표현하고,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delayed를 쓰는 것에 유의 한다.
- 22** (A)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leaning 이 적절하다.
- Emma는 그녀의 등을 나무에 기댄 채 숲에 서 있었다.
- (B)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이라는 의미이므로 과거분사 loved가 적절하다.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대성당은 가우디가 설계했다.
- (C) ‘입고 있는’이라는 의미이므로 현재분사 wearing이 적절하다. 그 은색 미니 드레스를 입은 Selena는 아름다운 여배우이다.
- 23** (1)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lived를 현재분사 liv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파라오들의 시대 동안에는 이집트에 사는 많은 고양이들이 있었다.
- (2) 교훈과 가치들은 (사람들에 의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과거분사 considered의 쓰임은 적절하다.
- 예술품들은 우리에게 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훈이나 가치들을 준다.
- 24** 「with + 명사 + 분사」 구문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opened가 가장 적절하다.
- 우리는 문을 활짝 연 채로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 내가 오늘 아침에 구운 케이크는 그 박스가 열린 채로 식탁에 남겨졌다.
- 25** (1) 킵은 (사람에 의해) 놓여지는 것으로 과거분사 laid가 적절하다.
- (2) 누군가가 손을 드는 것으로 현재분사 raising이 적절하다.
  - (3) 공격이 이어지는 것으로 과거분사 followed가 적절하다. followed by는 ‘~으로 이어지는, ~가 뒤따르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26** 「with + 명사 + 분사」 구문은 문장의 주절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주절의 동사와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⑥는 동사 was를 is로 고쳐 써야 같은 의미가 된다.
- ① 그녀가 팔짱을 끼고 그를 야단쳤다.
  - ② 뺨을 구우면서 우리는 채소 수프를 요리했다.
  - ③ 왕이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우리는 말을 잃었다.
  - ④ 그의 발이 진흙에 빠져서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 27** 집들은 지어진 것으로 building을 과거분사 built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는 내 남동생이다.
  - ② 그는 갈증을 줄여주는 무언가를 사고 싶었다.
  - ③ 그녀의 새 조수는 자신의 월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 ④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8 추력(thrust)이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므로 pushed를 현재분사 push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9 주어진 문장은 '이 네 가지 힘이 상호 작용하면서 비행기를 날게 한다.'라는 의미 이므로 네 가지 힘(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모두 언급된 다음인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보어가 문두에 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것과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31 추력은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 주고, 항력은 비행기를 뒤쪽으로 밀어 주는 공기인데 추력이 항력보다 크면 비행기가 앞으로 움직일 것이므로 빈칸에는 ③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가 적절하다.
- ① 도망갈 것이다
  - ②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다
  - ④ 우회할 것이다
  - ⑤ 뒤로 움직일 것이다
- 32 (A)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공기 속도의 증가는 압력의 감소라는 결과를 낸다는 흐름이므로 According to(~에 따르면)가 적절하다.
- (B) 공기 속도의 증가는 압력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러므로 더 빠르게 이동하는 공기가 날개 위쪽에 더 낮은 압력을 만들고 날개 아래쪽의 더 높은 압력이 양력을 만들면서 비행기가 위로 떠오르도록 밀어 준다는 흐름이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 Thus(그러므로, 따라서)가 적절하다.
- ① 무엇보다도 …… 우선
  - ② 그러나 …… 그래서
  - ④ 그 다음에 …… 그러므로
  - ⑤ ~에도 불구하고 …… 그 다음에
- 33 '～하면서'라는 의미의 분사구문이므로 접속사 as로 시작하는 부사절로 바꿔 쓸 수 있다.
- 34 '스스로'는 for oneself로 표현하고,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표현한다.
- 35 '이것은 종이 위쪽에 불어진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why를 because로 고쳐 써야 한다. this is why는 '그래서'라는 의미로 뒤에 결과가 이어져야 한다.
- 36 주어진 문장은 '연을 날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뒤쪽에 연을 둔 채로 뛰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는 주어인 이것(This)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므로 ①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7 ⑧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며, 선행사가 the sky로 장소를 나타내므로 that을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 ⑥ 누군가가 연줄을 당기는 것으로 pulled를 현재분사 pull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⑦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절은 단수 취급하므로 are를 단수동사 is로 고쳐 써야 한다.
- 38 분사 flown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 be동사」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문장의 시제(현재)와 선행사의 수(복수)에 맞게 which are가 적절하다.
- 39 다른 나라의 연과 달리 방패연은 중앙에 연의 가로 길이의 절반이 지름인 공기를 조절하는 원형 구멍이 있다고 했으므로 ⑤가 적절하다.
- 40 '~이 없다면'은 without을 이용한 가정법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하기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to부정사로 표현할 수 있다.
- 41 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흔히 흥미로운 과학 원리에 따라 작용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⑤ '~에 부합되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작용하여
  - ② ~에 관하여
  - ③ 그에 맞게
  - ④ (교통이) 정체된
- 42 (A)는 앞에서 언급한 긴 꼬리가 연이 잘 날고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을 가리키므로 (A)가 의미하는 바로는 ③ '꼬리가 연이 더 안정적으로 날도록 돋는다.'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연이 나는 데 꼬리는 쓸모없다.
- ② 연은 날기 위해 날개와 꼬리를 필요로 한다.
- ④ 연은 꼬리보다 날개를 필요로 한다.
- ⑤ 연은 더 높게 나는 것을 돋도록 많은 꼬리를 가진다.
- 43 (A) '감전이 되는' 것이므로 수동태 get shocked가 적절하다.
- (B) 가정법 과거(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이므로 과거동사 got이 적절하다.
- (C) helps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취하므로 (to) stay가 적절하다.
- 44 ⑧와 ⑤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며, ①은 지시대명사, ②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 ③④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 ① 그녀의 차는 내 차보다 더 비싸다.
  - ② 사실은 누구도 무엇이 진실인지 몰랐다는 것이었다.
  - ③ 우리 어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 ④ 그녀는 그녀의 친구가 지난주에 산 그 가방을 갖고 싶어 했다.
  - ⑤ 그의 담임 선생님은 고장 난 시계를 보셨다.
- 45 밑줄 친 it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the bird를 가리킨다.

## 수능형으로 끝내기

p.050~055

01 ⑤	02 ⑤	03 ①	04 ②	05 ③	06 ①
07 ①	08 ⑤	09 ④	10 ①	11 ⑤	12 ②
13 ⑤	14 ⑤	15 ①	16 ④	17 ⑤	18 ⑤

- 01 '～하면서'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as로 시작하는 부사절로 바꿀 수 있는 분사구문이므로 create를 crea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2 엔진과 프로펠러는 비행기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추력을 제공한다는 흐름이므로 reflect(반영하다)를 provide(제공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3 비행기가 네 가지 힘(양력, 중력, 추력, 항력)을 이용해서 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① '비행의 기본 원리'가 가장 적절하다.
- ② 비행기의 기본 원리
  - ③ 상호 작용의 기본 원리
  - ④ 네 가지 힘들의 기본 원리
  - ⑤ <베르누이의 원리>의 기본 원리
- 04 주어진 글은 연과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가 비행의 과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므로 비행과 관련된 네 가지 주된 힘에 대한 내용인 (B)가 바로 뒤에 나오고, (B)의 양력(lift)에 관한 이야기가 (A)에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추력(thrust)의 반대되는 힘인 항력(drag)에 관한 내용과 네 가지 힘의 상호 작용이 비행기를 날도록 만든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05 양력이라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는 내용이므로 ③ '종이는 나무, 넴마, 또는 풀로부터 추출한 섬유소 펄프의 촉촉한 섬유를 압착하여 구부러지는 판에 건조시켜 생산되는 얇은 물질이다.'는 문장은 글의 전체 흐름상 어색하다.
- 06 여러분 스스로 양력이라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7 연은 비행기와 같은 방식으로 나는데, 연을 날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뒤쪽에 연을 둔 채로 뛰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므로 unnecessary(불필요한)를 necessary(필요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8 연이 날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힘들이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양력과 중력의 양이 같아야 한다고 했고, 빙칸 바로 앞에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빙칸에는 ⑤ '추력과 항력도 동등해야 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추력이 항력보다 적어야 한다
  - ② 추력이 항력보다 커야 한다
  - ③ 추력과 항력은 또한 달라야 한다
  - ④ 추력은 필요하지 않지만 항력은 필요하다
- 09 비행기와 같은 방식으로 네 가지 힘을 이용해 연이 나는 방식을 설명한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는 ④ '연과 비행기는 같은 방식으로 난다.'가 적절하다.
- ① 여러분은 연이 날게 하기 위해서 뛰어야 한다.

- ② 오직 연만이 균형이 잡힌 네 가지 힘을 이용해서 난다.  
 ③ 연을 위한 추력은 연의 줄에 의해 제공된다.  
 ⑤ 연의 줄은 비행기의 엔진과 같다.
- 10 주어진 문장은 ‘이것은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어도 감전되지 않는 이유를 가리키므로 ①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1 새는 전깃줄에 앉아 있어도 감전되지 않지만 사람이 전깃줄에 걸린 연이나 풍선을 잡으면 감전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⑤ ‘왜 새가 전깃줄 위에서 감전 없이 서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가 적절하다.
- ① 감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경고하기 위해  
 ② 전깃줄에 서 있는 새를 소개하기 위해  
 ③ 전기를 이용할 때 심각한 전기 감전을 근절하기 위해  
 ④ 전기 감전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전깃줄을 광고하기 위해
- 12 새가 전깃줄 위에 서 있을 때, 새의 발 사이에는 (A) 전압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것은 감전되지 않지만, 만약 전압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처럼 (B) 감전될 것이다.
- ① 전압 …… 감전되다  
 ③ 흐르는 전기 …… 훈나다  
 ④ 감전 …… 전깃줄을 엿다  
 ⑤ 새의 발들 …… 훈나다
- 13 ⑧ ⑨ ⑩은 방패연을 가리키고, ⑪은 연의 중앙에 있는 구멍을 가리킨다.
- 14 주어진 문장은 ‘연의 정면에 있는 공기가 미는 힘은 바람의 일부가 이 구멍을 통해 뒤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크게 감소한다.’라는 뜻으로 연의 구멍이 공기를 조절한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⑫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15 연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흥미로운 과학 원리에 따라 작용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빙간에는 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우리가 궁금해하는 무언가  
 ③ 우리가 스스로 발명한 것들  
 ④ 우리가 여름에 즐길 수 없는 것들  
 ⑤ 우리가 공공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 16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흥미로운 과학 원리에 따라 작용하므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흐름이므로 빙간에는 ④ ‘원리’가 적절하다.
- ① 경로 ② 친구 ③ 힘 ④ 기계
- 17 문장의 동사가 필요하고, made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knowing을 knew로 고쳐 써야 한다.
- 18 우리 선조들은 꼬리의 길이에 따라 연이 잘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았고, 꼬리를 적당한 길이로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서술형으로 끝내기

p.056~058

- 01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a kite fly, or what a kite and an airplane have in common?
- 02 ② involved ⑥ pushing
- 03 ③ → greater
- 04 which
- 05 ⑧ This rectangular kite is traditionally made from five bamboo sticks and is covered with traditional Korean paper.
- ⑨ not just[only] some weight but also drag
- 06 (A) (p)roportion (B) (s)tably
- 07 ③ → control
- 08 ③ → fly
- 09 (A) The other (B) where
- 10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run with it behind you

- 01 ‘~한 적이 있는가?’는 ‘have + 과거분사’ 형태의 현재완료 시제로 표현할 수 있고,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표현한다.

08 · 현재(01)

- 02 ⑧ 앞에 나와 있는 명사(forces)를 수식하며, 문맥상 관련이 되는 것이므로 involve를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involv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⑥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 주는 추력(thrust)과 반대되는 힘인 항력(drag)은 비행기를 뒤쪽으로 밀어 주는 힘이므로 pushed를 현재분사 push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3 비행기가 앞으로 이동하려면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 주는 추력(thrust)이 비행기를 뒤쪽으로 밀어 주는 항력(drag)보다 커야 하므로 lesser(더 적은)를 greater(더 큰)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4 각각 선행사 weight와 drag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5 ⑧ 직사각형 연(방패연)은 전통 한지가 붙여지는 것으로 covered를 수동태 is cover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⑨ 꼬리는 연의 하단부에 중력뿐만 아니라 항력을 더해 줌으로써 연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흐름이므로 ‘~뿐만 아니라 …도’라는 의미의 not just[only] ~ but also …로 고쳐 써야 한다.
- 06 (A) proportion(비율): 전체에서 부분이나 나눈 둑인 어떤 것의 양  
 (B) stably(안정되게): 확실하거나 확실히 정해진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변할 거 같지 않은
- 07 방패연의 구멍이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흐름이므로 suck(빨아들이다)을 control(조절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8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므로 to fly를 fly로 고쳐 써야 한다.
- 09 (A) 두 개 중에서 하나와 다른 하나를 가리킬 때는 one과 the other로 표현하므로 빙간에는 The other가 적절하다.
- (B) 빙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the sky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 10 가주어-진주어 구문과 「with + 명사 + 분사[부사(구), 전치사(구)]」 구문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 R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시 쓰기

p.059~063

- 01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a kite fly, or what a kite and an airplane have in common?
- 02 The truth is that they both rely on the same science — the science of flight.
- 03 There are four main forces involved in flight: lift, weight, thrust, and drag.
- 04 Lift is created by the difference in air pressure between the air flowing over an airplane's wings and the air flowing under them.
- 05 Lift is opposed by weight, which is the force of gravity that is constantly pulling the airplane down.
- 06 If the amount of lift is greater than the amount of weight, the airplane will rise.
- 07 At the same time, thrust is created by the airplane's engines and propellers pushing the airplane forward.
- 08 Opposed to that force is drag, which is the air pushing the airplane back.
- 09 If thrust is greater than drag, the airplane will move forward.
- 10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four forces makes airplanes fly.
- 11 Airplanes are designed with these forces in mind.
- 12 The engines and propellers provide thrust to move airplanes forward.
- 13 The wings are shaped so that air has to travel faster over them than under them.
- 14 According to Bernoulli's principle, an increase in the speed of air results in a decrease in pressure.

## 08 Korean Culture: The Mirror of Our Hearts

15 Thus, air traveling faster creates lower pressure above the wings, and the higher pressure under the wings pushes the airplane up, creating lift.

16 You can see for yourself how the force of lift works.

17 Cut a strip of paper about 4 cm wide.

18 Hold one end of the strip near your lips, and blow slowly and evenly over the paper.

19 The other end of the strip will rise.

20 This is because the air blown out over the top of the paper moves quickly, so its pressure is lower than the still air under the paper.

21 The still air, with a higher pressure, pushes the paper upward into the lower pressure air.

22 A kite flies in the same way as an airplane does.

23 To make a kite fly,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run with it behind you.

24 This creates lift and pushes the kite up.

25 Once the kite gets up in the sky where the wind is strong enough, you can stop running, and the kite will fly.

26 Instead of engines and propellers, the tension from someone pulling on the kite's string provides thrust for a kite.

27 For a kite to remain flying, the amount of lift needs to be equal to the amount of weight so that those forces balance each other.

28 Likewise, thrust and drag must also be equivalent.

29 *Bangpaeyeon*, the most popular Korean kite, looks simple, but is the toughest of all kites flown in Korea.

30 The rectangular kite is traditionally made from five bamboo sticks and is covered with traditional Korean paper.

31 It is always made so that the width and length are in a 2-by-3 proportion.

32 Unlike kites in other countries, it has a circular hole in the center, with a diameter half the width of the kite.

33 What this hole does is control the air.

34 The push of air on the front of the kite is greatly reduced because some of the wind passes through the hole to the back.

35 This allows you to turn the kite quickly.

36 Without the hole, it would not be easy to control.

37 In addition, the kite is not easily damaged by strong wind.

38 As you can see from the example of the kite, things we use every day often act in accordance with interesting principles of science.

39 Make sure you think about these principles at work in your daily life.

40 A tail is sometimes added to a kite.

41 It can help make a kite fly more stably by adding not just some weight but also drag to its lower end.

42 The tail should have the right length, though.

43 Adding a short tail, for example, a 10 cm tail, will make the kite spin and roll around a lot.

44 Adding a longer tail, such as a 100 cm tail, can help the kite fly well, allowing it to go high without rolling very much.

45 Our ancestors knew all this and made the tail the right length.

###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66

01 ③

02 (1) offer (2) backache (3) inherit (4) generation

03 ① 04 ①

01 ③은 ‘안심 : 긴장’이라는 뜻의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소유하다 ② ~라고 여기다 ④ 의식 ⑤ 정확하게

02 (1) 제공하다(offer):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다

(2) 유통(backache): 허리에 있는 통증

(3) 물려받다, 상속받다(inherit): 누군가가 사망한 뒤 그 사람으로부터 돈, 집 등을 받다

(4) 세대(generation): 한 사회나 특정한 가문 내에서 같은 나이대의 모든 사람들

03 promote는 ‘증진시키다; 홍보하다; 승진시키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파란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판매 목표의 70퍼센트에 기여했기 때문에 관리자로 승진했다.

• 우리는 새로운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무료 마스크를 나눠줬다.

② 항상시킨다 ③ 광고하다 ④ 강조하다 ⑤ 주장하다

04 <보기>와 ①의 appear는 ‘~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녀는 나에게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것 같다.

① 무대 위의 모델들은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것 같다.

② 나무 뒤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다.

③ 뉴스에 언급된 그 남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④ 새로운 남학생은 갑자기 내가 어제 잊어버린 책을 가지고 나타났다.

⑤ 내 교실에 아주 자주 왔던 그 소년이 오늘은 나타나지 않는다.

### C 교과서 핵심 대화

p.067~068

01 ⑤ 02 ④

01 ①②③④는 놀란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고, ⑤는 ‘나는 그가 나를 보려 올 것이라서 기쁘다’는 의미로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02 A가 날씨가 좋다며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빙칸에는 ④ ‘함께 산책 하는 게 어때?’라는 제안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그것을 하지 말자.

② 무슨 일이야?

③ 여기에 왜 왔니?

⑤ 네가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 C 교과서 기타 대화

p.069

01 T 02 F

01 여자는 모든 팬들이 야구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느꼈다.

02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만의 김치를 정말 만들고 싶어 한다.

###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70

01 ④ 02 ⑤ 03 ③

- 01 밑줄 친 부분과 ④는 ‘나는 음식이 매우 빠르게 배달되어서 놀랐어’라는 의미이다.
- 나는 음식이 매우 빠르게 배달되었다고 생각했어
  - 나는 음식이 매우 빠르게 배달되어서 기뻤어
  - 나는 음식이 매우 느리게 배달되어서 놀랐어
  - 나는 음식이 매우 빠르게 배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았어
- 02 Ryan에게 전통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는 말에 빙칸 뒤에서 ‘그래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빙칸에는 선물을 주는 것에 동의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①②③④는 ‘좋은 생각이야.’라는 의미이고, ⑤는 ‘나는 그것이 좋은 생각 같지 않아.’라는 뜻으로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빙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03 남자가 귀국하기 전에 김치 만드는 것을 배워보고 싶다고 언급한 내용 다음에 ‘© 그거 알아? 너는 김치를 만들고 게다가 그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어. – ⑥ 멋지다. 내가 등록해야 하니? – ⑦ 응,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 ⑧ 나는 내가 만든 김치를 맛보는 게 정말 기대돼. 이봐, 나는 지금 체육 수업에 서둘러 가야 해.’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p.071~072

01 ⑤

02 It was her new car that[which] my friend bought from my uncle last Sunday.

- 01 ‘~이었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하고 부정형은 ‘조동사 + not +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02 It is ~ that 구문을 사용하여 목적어 her new car를 강조할 수 있고, that 대신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 내 친구가 지난 일요일에 나의 삼촌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바로 그녀의 새 차였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73

- 01 (1) She should not[shouldn't] have drunk too much water.  
 (2) The nurse may[might] have given the pill to the patient.  
 (3) Tiffany should have told the truth to her family and friends.
- 02 (1) could have passed (2) should have gone  
 (3) must have missed
- 03 (1) may (2) shouldn't (3) cannot have seen
- 04 ③

- 01 (1)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should not[shouldn't]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2) ‘~이었을지도 모른다’는 ‘may[might]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3) ‘~했어야 했다’는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02 (1)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이므로 ‘could have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Jake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었더라면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2) 지난밤에 일찍 잤어야 했다는 의미이므로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Eric은 학교에 또 지각했다. 그는 어젯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다.  
 (3) 문맥상 차를 또 놓쳤음에 틀림없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must have + 과거분사’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는 오늘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또 차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 03 (1) 운전 중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may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그녀는 운전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2)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사지 않았어야 했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n'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나는 그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사지 않았어야 했다.  
 (3) 나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거기서 나를 봤을 리가 없다는 맥락이 자연스러우므로 ‘cannot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그녀는 거기서 나를 봤을 리가 없다. 나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

- 04 ‘그의 농담이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므로 ‘~했을 수도 있었다,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의 ‘could have + 과거분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74

01 ②

- 02 (1) It was at the party where I drank a lot of soda.  
 (2) It is the pizza which I always want to eat.  
 (3) It is we who like to watch action movies at night.  
 (4) It was on that day when I lost my wallet given by my mother.

03 ③

- 01 a cup of nice coffee가 강조된 문장이므로 that 대신 which로 바꿔 써야 한다.  
 ① 작년에 스페인어를 배운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③ 내가 살았던 곳이 바로 그 비싼 건물이었다.  
 ④ 내가 그 시험을 바로 다음 주에 칠 것이다.  
 ⑤ 내가 백화점에서 봤던 사람이 바로 그 속녀였다.
- 02 (1) 장소 부사구(at the party)가 강조되었으므로 that을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2) 목적어(the pizza)가 강조되었으므로 that을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3) 주어(we)가 강조되었으므로 that을 who로 바꿔 쓸 수 있다.  
 (4) 시간 부사구(on that day)가 강조되었으므로 that을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03 Julia and Alice가 강조되었으므로 that 뒤에 they는 삭제해야 한다.  
 ① 식당에서 그 영화배우를 본 사람이 바로 나이다.  
 ② 내가 영화관에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다.  
 ④ 그 배우가 출연한 로맨틱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Ian이었다.  
 ⑤ 나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진흙을 가지고 놀던 곳이 바로 나의 정원이었다.

## R 교과서 기타 지문

p.079

01 F 02 F

- 01 한국에서 두 달 동안 살고 있는 Jason은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았다.  
 02 1908년에 열린 올림픽에서 출다리기의 승자는 미국이었다.

##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80~081

- |   |                          |                |                    |
|---|--------------------------|----------------|--------------------|
| 01 are  | 02 what this is          | 03 used to     | 04 means           |
| 05 이 경기를 해 봤음에 틀림없다   |                          |                |                    |
| 06 it is <i>juldarigi</i> that often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 |                          |                |                    |
| 07 pull   | 08 unforgettable         |                |                    |
| 09 Researching this cultural heritage                               |                          | 10 interesting |                    |
| 11 when the <i>juldarigi</i> tradition started in Korea             |                          | 12 must        |                    |
| 13 appeared   | 14 that                  | 15 where       | 16 was regarded    |
| 17 might have been  |                          | 18 cooperate   |                    |
| 19 with smaller ones attached to it                                 |                          | 20 so as to    |                    |
| 21 to catch   | 22 The game (being) over | 23 bring       |                    |
| 24 that   | 25 to help               | 26 own         | 27 participated in |
| 28 which was  | 29 and it weighed        |                |                    |
| 30 Though[Although]   |                          | 31 was, that   | 32 is              |
| 33 the other  | 34 wins                  |                |                    |
| 35 While we were preparing our presentation                         |                          | 36 However     |                    |
| 37 반영하다   | 38 the harmony           |                | 39 for us          |

01 ②	02 ②	03 ④	04 ④	05 (1) vary (2) promote (3) sort (4) express	06 ①	07 harvest 08 ③
09 ⑤	10 ①	11 Why don't we get it for him?				
12 why don't we go to a <i>Gimchi</i> making festival this Saturday	13 ④					
14 ④	15 ②	16 ④	17 ③			
18 Jodie could have bought the book, but she borrowed it from the library instead.						
19 ④	20 ④	21 ④				
22 (1) should have reported (2) must have practiced (3) could have completed	23 ⑤					
24 (1) should have passed (2) must have arrived	25 ④	26 ①				
27 ②	28 Before we start, guess what this is!	29 ③				
30 ④	31 ⑤	32 <i>juldarigi</i>	33 ②	34 ②		
35 <i>Juldarigi</i> ropes vary in shape and design from region to region.						
36 ② used ⑥ attached ⑧ bring	37 ③	38 ④	39 ②			
40 ⑤	41 it was my team that won	42 ⑤	43 ④			
44 ⑤	45 ③					

01 ②는 ‘조화로운 : 조화’라는 뜻의 ‘형용사 : 명사’의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 : 명사’의 관계이다.

- ① 기부하다 : 기부
- ③ 협동하다 : 협동
- ④ 조직하다 : 조직
- ⑤ 실망시키다 : 실망감

02 ‘여행 가방, 가방, 또는 상자로부터 물건들을 꺼내다’는 unpack(짐을 풀다)에 해당하는 영어풀이이다. pack은 ‘짐을 싸다’는 의미이므로 to put something into a bag, box, etc.(무언가를 가방이나 박스 등에 넣다)라는 영어풀이가 적절하다.

- ① 수확: 곡식을 모으는 활동
- ③ 지네: 다리가 많은 작고 긴, 가느다란 생물체
- ④ 기념품: 기념일이나 특별한 행사를 기억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간직하는 것
- ⑤ 책갈피: 페이지를 다시 빨리 찾기 위해 책의 페이지 사이에 넣는 두꺼운 종이, 가죽, 또는 플라스틱

03 thousands of는 ‘수천의’라는 의미이다.

- ① 비록 경기에 졌을지라도 너는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
- ② 그들은 나머지 다른 팀들이 더 나은 발표를 하는 데 기여했다.
- ③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빨강, 파랑, 그리고 흰색의 세 팀으로 나뉜다.
- ④ 수천 명의 팬들이 어제 체포된 배우를 위해 거리에 모여 행진했다.
- ⑤ 여기서 일해 오신 선생님들은 학교와 그들의 학생들에게 헌신하신다.

04 own은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possess와 바꿔 쓸 수 있다.

집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 ① 제공하다 ② 집착하다 ③ 제안하다 ⑤ 견디다

05 (1) 다른 상황에서 달라지다: 다르다(vary)

- (2) 사람들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고, 사용하고, 하도록 격려하거나 무언가를 지지하다: 증진[촉진]시키다(promote)
- (3) 여러 가지 것들을 순서대로 놓거나 무리로 나누다: 분류하다(sort)
- (4) 말하거나 적어서 누군가에게 감정, 의견, 또는 목표를 말하다: 표현하다 (express)

06 finish는 ‘끝나다’라는 뜻으로 be over와 바꿔 쓸 수 있다.

- 그 집의 청소는 정오 전까지 끝나야 한다.
- ② 떠맡다 ③ ~을 돌보다 ④ 참가하다 ⑥ ~을 고대하다

07 harvest는 ‘수확; 추수; 수확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 올해의 쌀 수확은 작년보다는 더 낫지만 평년보다는 훨씬 적다.
- 그들은 어떻게 밀을 수확하는지 몰라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다.

08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이 정말 많이 나와서 놀랐다는 내용이므로 밑줄 친 부분의 의도로는 ③ ‘감정 표현하기’가 적절하다.

09 자장면이 아주 빨리 배달되어서 정말 놀랐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⑤ ‘나는 음식이 정말 빨리 배달되어서 많이 실망했다’는 대화의 전체 흐름상 어색하다.

10 그에게 전통적인 선물을 해주는 게 어떨지 제안하는 말에 어떤 선물이 좋을지 묻고 있으므로 빙간에는 ① ‘좋은 생각이야.’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② 그건 꼼꼼한 생각이야.
- ③ 나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확신해.
- ④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 ⑤ 나는 그 생각이 좋은 거 같지 않아.

11 ‘(우리)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는 ‘Why don't we + 동사원형?’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다.

12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의 ‘Why don't we + 동사원형?’을 이용해 배열한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치 만들기 축제에 같이 가는 게 어때?

13 ‘~을 정말 기대하다, ~을 고대하다’라는 뜻은 ‘look forward to + (동)명사’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나는 내가 만든 김치를 맛보는 것을 기대할 거야.
- ② 나는 내가 만든 김치를 맛보는 것이 정말 신나.
- ③ 나는 내가 만든 김치를 맛보는 것을 원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 ⑤ 나는 내가 만든 김치를 맛볼 장소를 정말로 찾는 중이야.

14 김치 만들기 축제에 가지고 제안하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대화이므로 대화의 주제로는 ④ ‘김치 만들기 축제’가 가장 적절하다.

- ① 미소 자신의 김치
- ② 김치 만드는 방법
- ③ 김치 만들기 경연 대회
- ⑤ 축제에서 최고의 김치를 구입하는 것

15 한국의 야구장에서 모든 팬들이 노래하고 소리치며 응원하는 분위기에 놀랐다는 내용이므로 빙간에는 ②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팀을 매우 열정적으로 응원해서 정말 놀랐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팀을 매우 열정적으로 응원해서 정말 실망했다.
- ③ 내가 너무 열정적으로 그들의 팀을 응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랐다.
- ④ 나는 그들이 그들의 팀을 아주 열정적으로 응원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다.
- ⑤ 나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팀을 매우 열정적으로 응원해서 정말 놀랐다.

16 ‘그녀는 늦잠을 자서 기차를 놓쳤다. 만약 그녀가 일찍 일어났다면 그녀는 기차를 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의미의 ‘could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17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yesterday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be동사는 과거 시제인 was를 쓰고 that 대신 관계부사 when을 쓸 수 있다.

우리 가족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한라산을 등반한 것이 바로 어제였다.

18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었다’는 ‘c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19 ⑧ 강조 대상이 사람(the K-pop singer)이므로 which를 who[that]로 고쳐 써야 한다.

- ⑥ Brian이 항상 그의 친구들과 하는 것이 바로 그 컴퓨터 게임이다.
- ⑦ 모든 팀원들이 도시락을 들고 가는 곳이 바로 그 공원이다.
- ⑧ 몇몇 사람들은 그 남자가 말한 것을 판단 없이 정말로 믿었다.
- ⑨ 그의 아들이 곰 인형과 함께 잠자고 있었던 곳이 바로 그의 침대였다.

20 ‘must have + 과거분사’는 ‘~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이다.

- ① 너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다.
- ② 그는 파티에 갈 수도 있었다.
- ③ 그녀는 버스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 아마도 그녀는 버스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다.

- ④ 나의 남편은 우리의 방을 청소했음에 틀림없다.

≠ 나의 남편은 우리의 방을 청소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 ⑤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당시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 그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21 ‘…한 것은 바로 ~이었다’는 It 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쓸 수 있으므로 It was in the forest that the children saw beautiful birds yesterday로 배열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여덟 번째로 오는 단어는 children이다.

22 (1)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 (2)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 (3) ‘~했었더라면 …했을 텐데’라는 의미는 가정법 과거완료인 「If + 주어 + had + 과거분사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have + 과거분사 …」로 표현하므로 could have complet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3**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빙칸에 순서대로 who, that, whom, when이 올 수 있으므로 빙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why이다.
- 나의 아버지께 중요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 토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곳이 바로 7번가이다.
  - 비바람이 부는 날에 내가 강에서 구조했던 사람이 바로 Tom이었다.
  - 내 조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날이 바로 새해 전야였다.
- 24** (1) ‘~했어야 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should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2) ‘~이었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25** 강조 대상(Paul)이 사람이며 when을 who[that]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Vanessa는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에 정말로 갔다.
  - ② 그가 지난주에 그의 SNS에서 봤던 것이 바로 그 동영상이었다.
  - ③ 그녀가 학교 교복으로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치마이다.
  - ④ 전문가의 수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아버지 차의 엔진이었다.
- 26** 주어진 문장은 ‘Jeffery는 대회에서 1등을 했다.’라는 뜻으로 뒤에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는 열심히 노력했었음에 틀림없다.’이다.
- ②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수도 있었다.
  - ③ 그는 열심히 노력했어야만 했다.
  - ④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리가 없다.
  - ⑤ 그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야 했다.
- 27** (A) 주어가 students로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것으로 능동의 진행형 giving이 적절하다.
- (B) 주어로 동명사(Stepping)가 쓰일 경우 단수 취급하므로 단수동사 means가 적절하다.
- (C) ‘…한 것은 바로 ~이다’는 it is ~ that 강조 구문으로 표현하므로 that이 적절하다.
- 28** ‘~하기 전에’는 「before + 주어 + 동사」로 표현할 수 있고,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표현한다.
- 29**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 줄다리기는 단순히 학교 스포츠가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바로 뒤에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내용이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주어진 문장은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선행사가 사물이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1** to help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promoting을 (to) promote로 고쳐 써야 한다.
- 32** 밑줄 친 (A), (B)의 it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juldarigi*를 가리킨다.
- 33** 주어진 문장은 ‘줄다리기는 단순한 운동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라는 뜻으로 줄다리기 의식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4** 한국에서 줄다리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이 글의 주제로는 ②가 적절하다.
- 35** ‘~에 있어서 다양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in을 사용하고 ‘지역마다’라는 의미는 from region to region으로 표현한다.
- 36** ⑧ 문장의 동사는 looks이고 명사인 The rope와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us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⑩ 「with + 명사 + 분사」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attach를 과거분사 attached로 고쳐 써야 한다.
- ⑪ 「are believed to + 동사원형」이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brought를 동사원형 b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7** 주어진 문장은 ‘그들은 그 조각들을 지붕 위로 던지거나 집의 문 위에 걸어 둡니다.’라는 뜻으로 빗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집으로 가져간다는 내용 바로 뒤에 나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8** (A)에는 believ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적절하고, (B)에는 the famili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이 적절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that이다.
- 39**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어야 하므로 weighed를 weigh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0**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는 흐름이므로 symbolize(상징하다)를 reflect(반영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1** my team을 강조하는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영작할 수 있고 과거시제 이므로 be동사는 was로 쓰고, win은 won으로 바꿔 써야 한다.
- 42** 줄다리기가 한국이나 몇몇 아시아 국가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으므로 ⑥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43** 줄다리기가 더 이상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하는 국제적인 조직이 있다는 흐름이므로 degeneration(퇴보)을 promotion(진흥)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4** (A) 한 국가가 올림픽에 한 팀 이상을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한 국가가 여러 개의 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내용 뒤에 미국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세 개의 매달을 모두 따냈다는 예시가 나오므로 빙칸에는 For example(예를 들어)이 적절하다.
- (B) 줄다리기가 더 이상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하는 조직이 있다는 흐름이므로 빙칸에는 However(하지만)가 적절하다.
- ① 그러나 …… 특히
  - ② 게다가, 더욱이 …… 그러나
  - ③ 예를 들어 …… 다시 말해서
  - ④ 특히 …… 게다가, 더욱이
- 45** 1900년부터 20년 동안 줄다리기가 올림픽의 단체 경기였지만 현재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글의 제목으로는 ③ ‘줄다리기는 올림픽 경기였는가?’가 적절하다.
- ① 줄다리기의 역사
  - ② 가장 공정한 경기, 줄다리기
  - ④ 가장 인기 있는 경기, 줄다리기
  - ⑤ 런던 올림픽에서의 줄다리기

##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94~107

- |  |                 |                                 |       |  |
|--|-----------------|---------------------------------|-------|--|
| 01 ⑤   | 02 (i)ntangible | 03 ⑤                            | 04 ③  |  |
| 05 a series of   | 06 ⑤            | 07 ①                            | 08 to | 09 ④   |
| 10 ①, ③  | 11 ②            | 12 ⑤                            | 13 ③  | 14 I was really surprised that everyone cheered so eagerly for their team. |
| 15 ⑤   | 16 ⑤            | 17 ⑤                            | 18 ②  | 19 ②, ④  |
| 20 She could have gone directly to college, but she decided to travel for a year.  | 21 ④            | 22 ①                            |       |  |
| 23 (1) It was my mother that[who] wanted me to go to the party with my sisters.  |                 |                                 |       |  |
| (2) It was the light on the ceiling that[which] the interior designer chose.   |                 |                                 |       |  |
| 24 (1) could (2) should (3) must   |                 |                                 |       |  |
| 25 (1) solved (2) started (3) washed   |                 |                                 |       | 26 ③   |
| 27 (1) should have taken (2) could have told (3) must have eaten   |                 |                                 |       |  |
| 28 ④   | 29 ②            |                                 |       |  |
| 30 it is <i>juldarigi</i> that often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  |                 |                                 |       | 31 ①   |
| 32 ④   | 33 ④            | 34 ②                            | 35 ①  | 36 ③   |
| 37 The rope used in Yeongsan and Gijisi <i>juldarigi</i> , with smaller ones attached to it, looks like a giant centipede. |                 |                                 |       | 38 pieces  |
| 39 and it weighed  | 40 ④            | 41 (A) was (B) preparing (C) is |       |  |
| 42 ⑤   | 43 ①            | 44 ④                            | 45 ⑤  |  |

- 01** ⑧ 싸움, 전쟁, 또는 경쟁에서 누군가를 이기다: 패배시키다(defeat)
- ⑩ 연극이나 쇼를 조직하여 공연하다: (공연 등을) 무대에 올리다(stage)
- ⑪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행동하거나 일을 하다, 또는 누군가가 시킨 것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다: 협동하다(cooperate)
- ⑫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면서 일하는 상황: 조화(harmony)

- 02** intangible(무형의): 달거나 측정될 수 없는,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 03** ‘다르다[다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vary이다.
- 그것들의 크기는 콩처럼 작은 것부터 코끼리처럼 큰 것까지 다양하다.
  - 반지 위의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트부터 타원형까지 다양하다.
- ① 물려받다, 상속받다 ② 분류하다 ③ 기부하다 ④ 덧붙이다
- 04** 조부모님 댁 근처에 큰 쇼핑몰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흐름이므로 ‘~하곤 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인 used to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be used to + 동사원형」은 ‘~하는 데 사용되다’는 의미이다.
- ① 우리가 그 파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be over: 끝나다)
- ② Jane과 Losa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look forward to + (동)명사: ~을 고대하다)
- ④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든 이기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한다. (try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 ⑤ Kevin의 팀원들이 그들의 반 친구들에게 한국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 05** a series of: 일련의
- 06** 〈보기〉와 ⑤의 harvest는 ‘추수, 수확’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①②③④는 ‘수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그 나무 뒤에 보이는 것이 오늘 수확의 전부이다.
- ① 매해 우리는 마을 최고의 토마토를 수확한다.
  - ② 그들은 밭에 있는 대부분의 포도를 수확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 ③ 바람은 우리가 언제 밀을 수확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 ④ 우리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땅에 심은 것을 수확한다.
  - ⑤ 쌀의 수확량이 많을 때 가격은 내려간다.
- 07** 책을 알파벳 순서로 분류한다는 흐름이므로 ① ‘다르다’는 적절하지 않다. ②③④⑤는 모두 ‘분류하다’라는 의미이다.
- 그들은 바닥에서 책들을 알파벳 순서로 분류한다.
- 08** be dedicated to + 명사(구): ~에 헌신하다
- contribute to + 명사(구): ~에 기여하다
- 개인 보호용 드론은 개인의 안전에 헌신하도록 고안되었다.
  - 그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09**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Ryan이 싸야 할 짐이 많을 것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unpack(짐을 풀다)을 pack(짐을 싸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0** 좋은 생각이라며 어떤 것이 멋진 선물이 될 것인지 묻고 있으므로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Ryan에게 우리가 전통적인 선물을 하나 해 주자는 제안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우리가 그에게 전통적인 선물을 하나 해 줬니?
  - ④ 네가 그에게 전통적인 선물을 하나 해 주는 게 어때?
  - ⑤ 왜 그에게 전통적인 선물을 하나 해 주지 않았니?
- 11** ‘(우리가) ~하는 게 어때?’라는 의미는 Why don't we ~?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너는 이번 주 토요일에 김치 만들기 축제에 갈 거니
  - ③ 너는 이번 주 토요일에 김치 만들기 축제에 가는 게 어때
  - ④ 너는 이번 주 토요일에 김치 만들기 축제에 갈 거니 안 갈 거니
  - ⑤ 너는 이번 주 토요일에 김치 만들기 축제에 갈 계획이니
- 12** 남자는 귀국하기 전에 김치 만드는 방법을 정말로 배우고 싶다고 했으므로 자신이 만든 김치를 기대한다는 흐름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빙칸에는 ⑤ ‘나는 맛보는 것이 정말 기대돼’가 가장 적절하다.
- ① 나는 판매할 것이다 ② 그들은 먹을 것이다
  - ③ 나는 공유할 것이다 ④ 나의 어머니는 분명 좋아하실 것이다
- 13**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 식당에서 식사할 때 많은 접시와 그릇에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빙칸에는 ③ ‘나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놀라’가 적절하다.
- ① 나는 여전히 한국 문화가 즐거워
  - ② 나는 여전히 한국 문화가 혼란스러워
  - ④ 나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당황해
- ⑤ 나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
- 14** ‘~에 놀랐다’는 I was surprised that ~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5**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운동인 야구를 즐기기 위해 야구장에 간 여자는 모두가 자신들의 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그 사람들처럼 자신도 야구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자의 말의 목적으로는 ⑤ ‘그녀가 한국 야구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가 적절하다.
- ① 한국 야구장을 광고하기 위해
  - ② 한국 야구장에 기부하기 위해
  - ③ 한국 야구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 ④ 한국 야구장에서의 경험을 계획하기 위해
- 16** Cameron의 친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should를 must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Amy는 영화관에 갔을지도 모른다.
  - ② 그는 그렇게 늦게 푸짐한 저녁을 먹지 말았어야 했다.
  - ③ Peter는 혼명하므로 그는 내 거짓말을 믿었을 리가 없다.
  - ④ 당신은 집을 떠나기 전에 문을 잠갔어야 했다.
- 17** ①은 do 동사를 이용하여 동사 learn을 강조한 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각각 ② 목적어(the magic), ③ 전치사구(from his teacher), ④ 주어(Merlin)를 강조한 문장이다. ⑤는 강조 대상이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for almost two years이므로 that을 whom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Merlin은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약 2년간 마술을 배웠다.
- ① Merlin은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약 2년간 마술을 정말로 배웠다.
  - ② Merlin이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약 2년간 배웠던 것이 바로 마술이었다.
  - ③ Merlin이 약 2년간 마술을 배운 것이 바로 그의 선생님으로부터였다.
  - ④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약 2년간 마술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Merlin이었다.
- 18** ⑧에는 ‘~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must have + 과거분사」, ⑯에는 ‘~했어야 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should have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내 개인 Chacha와 산책 후에 막 집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전화가 왔다. 통화를 끝낸 후, 나는 우리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봤다. 나는 문을 닫지 않았음에 틀림없었고 나는 Chacha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Chacha를 찾으려고 동네를 전부 뛰어다녔다. 절망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욕실에서 깅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곳에 바람 때문에 문이 닫혀서 간신히 Chacha가 있었다. 산책 후에 욕실에서 발을 씻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모른 채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던 것이다. 나는 거리를 먼저 찾아봤어야만 했다.
- 19**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에서 목적격인 사람을 강조할 때는 that 대신에 whom을 쓸 수 있고, 동사는 문장의 시제(과거시제)와 일치시켜야 한다.
- 내가 내 남동생과 함께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었다.
- 20**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었다’는 「c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 21** (A)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in my room을 강조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that 대신에 where를 쓸 수 있다.
-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그 반지를 잊어버린 곳은 바로 내 방이었다.
- (B)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on Saturdays를 강조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므로 that 대신에 when을 쓸 수 있다.
- 내가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 바로 매주 토요일이다.
- (C) 동사를 강조하는 do를 three years ago와 시제를 맞춘 di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Simon은 3년 전에 아름다운 여배우들과 멋진 영화들을 정말로 제작했다.
- 22** 「must not have + 과거분사」는 ‘~이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이므로 ① ‘Cindy는 그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23** (1)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이므로 which를 that 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로 고쳐 써야 한다.
- 내가 파티에 내 자매들과 함께 가는 것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다.
- (2)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는 대상이 사물이므로 whom을 that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선택한 것이 바로 천장의 그 전등이었다.
- 24** (1) 그녀는 파리에 방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could have + 과거분

- 사: ~했을지도 모른다)
- (2) 그는 나의 노트북을 망가트렸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should not[shouldn't] have + 과거분사: ~하지 말았어야 했다)
- (3) Alex는 그녀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어딘가에 떨어뜨렸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 25 (1) Jake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다고 했으므로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었음에 틀림없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must have + 과거분사(~이었음에 틀림없다)」의 형태로 solved가 적절하다.
- Jake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지금 낮잠을 자는 중이다.
- (2) 농구 경기가 오후 5시에 열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시작했을 리가 없다는 흐름이므로 「cannot have + 과거분사(~이었을 리가 없다)」의 형태로 started가 적절하다.
- 나는 그 농구 경기가 오후 5시에 열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시작했을 리가 없다.
- (3) 내가 모든 청바지를 다 세탁해서 지금 입을 것이 없다는 흐름이므로 「should not have + 과거분사(~하지 말았어야 했다)」의 형태로 washed가 적절하다.  
내 모든 청바지를 세탁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지금 입을 옷이 없다.
- 26 ①②③는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의 that, ⑥는 much를 수식하는 지시부사, ⑧는 hear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다.
- ⑧ John과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곤 했던 곳이 바로 그 캠프였다.
- ⑥ Chris는 모든 7살짜리 아이들을 그렇게나 많이 미워한다.
- ⑤ 우리가 그 당시에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James였다.
- ⑦ 일간 신문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 바로 그 기자이다.
- ⑨ 나는 그 건물의 2층에 사는 남자가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들었다.
- 27 (1) 나는 지난밤 집에 걸어오면서 훌딱 젖었다. 나는 우산을 가져갔어야 했다.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 (2) 그가 무대를 봤다면 누가 공연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 과거분사: ~했을 수도 있었다)
- (3) 그녀는 복통이 생겼다. 그녀는 어제 너무 많이 먹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 28 줄다리기가 운동회의 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이 경기를 해 봤음에 틀림없다는 흐름이므로 「must have + 과거분사(~이었음에 틀림없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to play를 played로 고쳐 써야 한다.
- 29 주어진 문장은 ‘이것이 우리 발표의 주제입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이것’은 앞 문장에 나온 줄다리를 가리키므로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30 ‘…한 것은 바로 ~이다’는 It is ~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해 영작할 수 있다.
- 31 줄을 당기기 전에 느꼈던 긴장감을 내가 여전히 기억한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빙칸에는 ① ‘내가 줄을 당기기 바로 전에 느꼈던’이 가장 적절하다.
- ② 내가 줄을 당기기 바로 전에 우리가 느꼈던
- ③ 그들이 줄을 당기기 바로 전에 느꼈던
- ④ 내가 줄을 당기기 바로 전에 아무도 느끼지 못했던
- ⑤ 내가 줄을 당기기 바로 전에 느끼지 못했던
- 32 많은 마을에서 이 전통을 소중이 여겼고, 몇몇 마을들은 그것을 흥미로운 축제로 발전시켰다는 흐름이므로 neglected(neglect: 경시하다)를 cherished(cherish: 소중히 여기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3 (A) ‘언제 시작되었는지’라는 의미이므로 과거동사 started가 적절하다.
- (B) 줄다리기가 의식으로 여겨지는 것이므로 수동태 (be동사 + 과거분사)가 적절하다.
- (C) 주어인 a series of actions가 복수이므로 복수동사 were가 적절하다.
- 34 줄다리는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졌고, 줄다리기가 사람들이 협동하도록 돋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완벽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흐름이므로 「might have + 과거분사(~이었을지도 모른다)」가 가장 적절하다.
- ① ~이었어야 했다
- ③ ~이었음에 틀림없다
- ④ ~이었을 리가 없다
- ⑤ ~이지 말았어야 했다
- 35 정확히 언제 한국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시작된 줄다리기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① ‘줄다리기의 오랜 역사’가 적절하다.
- ② 오직 조선에서의 줄다리기 전통
- ③ 의식들의 일련의 행동들, 줄다리기
- ④ 한국 남부 지역의 경기, 줄다리기
- ⑤ 기지시, 영산, 삼척, 감내, 그리고 의령에서의 줄다리기
- 36 줄다리기 경기가 끝나면 거대한 밧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집에 가져간다는 흐름이므로 bigger(더 큰)를 smaller(더 작은)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7 rope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used로 쓰고, 「with + 명사 + 분사」에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attached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8 밑줄 친 them은 앞에서 언급한 pieces(줄다리기 줄을 작은 조각들)를 가리킨다.
- 39 weighing은 분사구문으로 접속사 and로 시작하는 절로 바꿔 쓸 수 있다.
- 40 주어진 문장은 ‘그들이 말하기 전자의 팀이 이기면 나라가 평화롭고, 후자가 이기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전자는 수상팀, 후자는 수하팀을 가리키므로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1 (A)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에서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므로 is를 was로 고쳐 써야 한다.
- (B) 문장의 주어인 우리(we)가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prepared를 능동의 현재분사 prepa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C) 관계대명사 W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 단수동사가 와야 하므로 ar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 42 동호는 기지시의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하여 엄청난 크기의 밧줄을 보고 놀랐고, 줄다리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팀이 이겨서 기쁜 감정을 느꼈으므로 심경 변화로는 ⑤ ‘놀란 → 기쁜’이 적절하다.
- ① 궁금해하는 → 편안한                          ② 겁먹은 → 우울한  
 ③ 기쁜 → 후회되는                                  ④ 화난 → 창피한
- 43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수식하는 선행사가 단수인 an exercise이므로 help를 단수동사인 helps로 고쳐 써야 한다.
- 44 (A) 줄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 행사이거나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어른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흐름이므로 spirit(정신)이 적절하다. (a team player: 팀 활동을 잘하는 사람)
- (B) 한 국가가 올림픽에 한 팀 이상을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한 국가가 여러 개의 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흐름이므로 multiple(다수의)이 적절하다. (trivial: 사소한, 하찮은)
- (C) 예전에 올림픽 종목이었던 줄다리기가 다시 올림픽 종목이 되어 국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질문하는 흐름이므로 cheer(응원하다)가 적절하다. (blame: 비난하다)
- 45 주어진 문장은 ‘그러나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하는 국제 조직이 있다.’라는 뜻으로 예전에 올림픽 종목이었던 줄다리기가 더 이상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줄다리기를 위한 국제 조직이 있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수능형으로 끝내기

p.108~113

01 ④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①	17 ④	18 ⑤

01 *juldarigi*를 강조하고 있는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주어가 단수인 *juldarigi*이므로 highlight를 단수동사인 highlights로 고쳐 써야 한다.

02 ①②③⑥는 ‘줄다리기’를 가리키고, ④는 ‘학교 운동회’를 가리킨다.

03 줄다리기에서의 패배는 앞으로 가는 것이므로 빙칸에는 ③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빠르게 뛰는 것

② 천천히 기어가는 것

- ④ 한 걸음 물러서는 것  
⑤ 오랜 시간 걷는 것
- 04** 줄다리기는 사람들이 협동하도록 돋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원색 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흐름이므로 ‘~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도록 should를 might로 고쳐 써야 한다. 「should have + 과거완료」는 ‘~했어야 했다’는 의미이다.
- 05** 주어진 문장은 ‘줄다리기는 단순한 운동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라는 뜻으로 바로 뒤에 줄다리기 의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하므로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6** 몇몇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흥미로운 축제로 발전시켰다고 했으므로 줄다리기 전통을 소중히 여겼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이 전통을 소중히 여겨왔다’가 적절하다.
- ① 공통된 주제를 갖다  
③ 다양한 상품들을 갖고 있다  
④ 더 이상 그 모델을 생산하지 않는다  
⑤ 전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다
- 07** 줄다리기 의식은 줄 만들기, 의식 거행하기, 줄 당기기, 그리고 경기 후 특별한 행사 연출하기의 순서로 수행되었다고 언급했으므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8** 문장의 주어가 The rope로 단수이므로 look을 단수동사인 looks로 고쳐 써야 한다.
- 09** 경기가 끝나면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밧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집으로 가져간다는 흐름이므로 tie(묶다)를 cut(자르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0** 줄다리기 밧줄의 모양과 디자인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 밧줄을 잘라 지붕 위로 던지거나 문 위에 걸어두면 가족에게 풍년, 건강,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단순한 밧줄이 아닌 당기는 밧줄’이 적절하다.
- ① 감내의 당기는 줄  
② 당기는 줄 안의 불운  
③ 단순히 밧줄인 당기는 줄  
④ 어느 곳에서나 같은 당기는 줄
- 11** 주어진 글은 동호가 지난 4월에 열린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해서 놀랐다는 내용이므로 바로 뒤에 밧줄의 크기가 엄청나서 놀랐다는 (C)가 오고, 줄다리기가 시작되어 자신의 팀이 이겼다는 (A)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두 팀이 각각 이겼을 때의 의미와 수하팀이 이겨 풍년이 오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는 (B)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2** gathered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pulling을 pulled로 고쳐 써야 한다.
- 13**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하는 경기인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동의 정신 안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한 것이 멋진 일이었다는 흐름이 적절하므로 빈칸에는 ⑤ ‘협동’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법 ② 젊음 ③ 희생 ④ 지역사회
- 14**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하는 국제 조직이 줄다리기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희망한다는 흐름이므로 faith(신뢰, 믿음)를 glory(영광)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5** (A) 선행사가 an exercise이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B) 선행사가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C) get의 목적어가 사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included가 적절하다.
- 16** ① 여러분은 보통 줄다리를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 행사나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어른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줄다리기는 과거에 올림픽의 단체 경기였다는 흐름이므로 In fact(사실)가 적절하다.  
② 줄다리기가 더 이상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하는 조직이 있다는 흐름이므로 빈칸에는 However(하지만)가 적절하다.  
③ 사실 …… 유사하게  
④ 비록 ~일지라도 …… 그러나
- ④ 그러나 …… 그러므로  
⑤ 대조적으로 …… 다시 말해서
- 17** 빈칸 뒤에 한 국가가 여러 개의 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④ ‘올림픽에 한 팀 이상을 보내다’가 적절하다.
- ① 먼저 팀을 나누다  
② 타협하기 위해 노력하다  
③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다  
④ 감정과 신념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18** 줄다리기 진흥에 헌신하는 국제 조직이 매년 줄다리기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고 언급했으므로 ⑤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서술형으로 끝내기

p.114~116

- 01 ⑥ → forward  
02 (A) You all must have played this game  
(B) it is *juldarigi* that often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  
03 I still remember the tension I felt just before starting to pull.  
04 that  
05 ④ → giant  
06 (A) where (B) to look  
07 ⑧ → held  
08 ④ → happy  
09 (A) Even though[Even if] (B) However[But]  
10 the country will be peaceful if the former team wins, and that it will have a good harvest if the latter wins
- 01 줄다리기에서의 패배는 앞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backward(뒤로)를 forward(앞으로)로 고쳐 써야 한다.  
02 (A) 여러분 모두가 이 경기를 하는 것으로 수동태(must have been played)를 능동태(must have played)로 고쳐 써야 한다.  
(B) 학교 운동회에서 흔히 절정을 이루는 것이 줄다리기라는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문장의 시제가 현재시제이므로 was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03 12단어로 써야 하므로 tension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which]을 생략하고 start의 목적어로 to부정사를 취하는 것에 유의하여 영작한다.  
04 ⑧에는 say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적절하고, ⑤에는 families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that]가 적절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that이다.  
05 영산과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밧줄은 더 작은 밧줄이 덧붙여져 있고 거대한 지네처럼 보인다는 흐름이므로 tiny(아주 작은)를 giant(거대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6 (A)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선행사가 위치를 나타내므로 what을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B) 사역동사 make를 수동태로 쓸 때 to부정사를 써야 하므로 look를 to look으로 고쳐 써야 한다.  
07 문장의 동사는 took이므로 hold를 Festival을 수식하는 과거분사 held로 고쳐 써야 한다.  
08 동호는 자신이 속한 수하팀이 이겨서 풍년이 오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좋았다는 흐름이므로 depressed(우울한, 낙담한)를 happy(행복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9 (A) 두 팀이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이긴 것은 바로 우리 팀이었다는 흐름이므로 ‘비록 ~일지라도’라는 뜻을 나타내는 Even though[Even if]가 적절하다.  
(B) 줄다리기가 한국이나 몇몇 아시아 국가에만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흐름이므로 ‘그러나, 하지만’의 뜻을 나타내는 However[But]가 적절하다.  
10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if)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므로 동사 wins를 쓰는 것에 유의해 영작한다.

- 01 For their final project, students in Ms. Nam's English class are giving group presentations about Korean culture.
- 02 Before we start, guess what this is!
- 03 This is a team sport.
- 04 It used to be an Olympic event.
- 05 Stepping forward means your defeat.
- 06 Players use a long rope.
- 07 Yes, the answer is *juldarigi* or tug of war.
- 08 This is the topic of our presentation.
- 09 You all must have played this game at least once because it is *juldarigi* that often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
- 10 I still remember the tension I felt just before starting to pull.
- 11 The moments of joy and disappointment were also unforgettable.
- 12 However, this isn't just a school sport.
- 13 In 2015, *juldarigi* was added to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under the heading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 14 As we researched this cultural heritage, we learned a lot of new and interesting facts.
- 15 Nobody knows exactly when the *juldarigi* tradition started in Korea, but our ancestors must have performed it for hundreds of years.
- 16 The first historical record appeared in *Donggungnyeojiseungnam* (1481).
- 17 The book says that it was widely popular in the middle and southern parts of Korea where rice farming was common.
- 18 *Juldarigi* was regarded not just as a sport but also as a ritual.
- 19 In the *juldarigi* ritual, a series of actions were usually performed in the same way: making the ropes, holding ceremonies, tugging the ropes, and staging special events after the game.
- 20 *Juldarigi* might have been a perfect way to help people cooperate and promote the harmony and unity of the community.
- 21 In Korea, many towns have cherished this tradition, and some towns, such as Gijisi, Yeongsan, Samcheok, Gamnae, and Uiryeong, have developed it into exciting festivals.
- 22 Look at this slide.
- 23 What do the ropes look like?
- 24 *Juldarigi* ropes vary in shape and design from region to region.

- 25 The rope used in Yeongsan and Gijisi *juldarigi*, with smaller ones attached to it, looks like a giant centipede.
- 26 The rope used in Gamnae *juldarigi* is made to look like a crab in order to express the participants' wish to catch more crabs.
- 27 After the game is over, people in some areas cut the rope into smaller pieces and bring them home.
- 28 They throw the pieces onto the roof or hang them on the gate of their home.
- 29 Some people believe that these ropes can bring a good harvest, health, and peace to their families.
- 30 Interestingly, Gijisi *juldarigi* ropes are believed to help couples have a child, cure backaches, and bring good luck to the families that own them.
- 31 Last April, I took part in the Gijisi *Juldarigi* Festival, held in Dangjin, Chungcheongnamdo.
- 32 At first, I couldn't believe my eyes.
- 33 The size of the rope was unbelievable.
- 34 It was about 200 meters long and one meter thick, weighing over 40 tons.
- 35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and pulled the "centipede" rope to win.
- 36 Even though both teams tried their best, it was my team that won.
- 37 Actually, which team wins is not that important.
- 38 By tradition,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two teams by township: one team from *susang*, the northern area, and the other from *suha*, the southern area.
- 39 They say that the country will be peaceful if the former team wins, and that it will have a good harvest if the latter wins.
- 40 I was happy because I learned that I helped bring a good harvest!
- 41 It was wonderful to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in the spirit of cooperation.
- 42 Most of all, it was fun.
- 43 Now, what does *juldarigi* mean to you?
- 44 While preparing our presentation, we learned that *juldarigi* isn't unique to Korea or other Asian countries.
- 45 However, Korean *juldarigi* rituals reflect our history and culture and have contributed to the harmony and unity of communities.
- 46 What is important is for us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our traditional *juldarigi* for future generations.

# 최종점검 모의고사

## Lesson 07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4~131

01 ④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 ④	08 ④	09 ②	10 ③	11 ⑤	12 ②
13 ①	14 ⑤	15 ②	16 ①	17 ⑤	18 ②
19 ②	20 ⑤	21 ⑤	22 ⑤	23 ④	24 ⑤
25 ④					

- 01** 바로 앞에 나오는 중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어야 하므로 빈칸에는 ④ '비행기를 땅으로 계속해서 당기는'이 적절하다.
- ① 계속해서 비행기를 위로 당기는
  - ② 거의 추진력에 반대되는
  - ③ 날개 아래쪽 압력에 의해 발생되는
  - ④ 바람의 세기에 따라 변화되는
- 02** (A) 비행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력이 중력보다 더 커야 하므로 greater가 적절하다. (smaller: 더 작은)
- (B) 추력에 반대되는 힘이 양력이므로 Opposed(반대되는)가 적절하다. (Similar: 유사한)
- (C) 추력이 항력보다 더 클 때 비행기가 앞으로 움직이므로 forward(앞으로)가 적절하다. (backward: 뒤로)
- ① 더 큰 ..... 유사한 ..... 앞으로      ② 더 큰 ..... 유사한 ..... 뒤로
  - ④ 더 작은 ..... 반대되는 ..... 앞으로      ⑤ 더 작은 ..... 반대되는 ..... 뒤로
- 03** 추력이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으므로 ④ '비행기의 비행에 적용되는 추력이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인공적인 힘이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① 비행의 과학은 연이 아니라 비행기에만 적용된다.
  - ② 날개의 위 아래 공기 압력차는 네 가지 힘들이 비행에 관련되게 만든다.
  - ③ 양력과 추력은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⑤ 네 가지 주요 힘들의 작용과 반작용은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한다.
- 04** 비행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힘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비행기가 상승해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비행기가 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슨 힘들이 필요한가?'가 적절하다.
- ① 어떻게 네 가지 주요 힘들이 만들어지는가?
  - ② 자연적인 힘들에 숨겨진 비밀들
  - ③ 중력에 반하여 물체를 움직이는 것의 기초
  - ④ 서로 반대로 상호 작용하는 네 가지 힘들
- 05**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공기 속도의 증가는 압력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날개 위에서 더 빨리 지나가는 공기가 더 낮은 압력을 만든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④ slower(더 느린)를 faster(더 빠른)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6** 비행기가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라는 네 가지 힘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며 이러한 힘들을 이용하여 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③ '비행기가 나는 방식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들'이 적절하다.
- ① 비행기의 주요 부품들과 그것들의 역할
  - ② 비행에서 비행기의 날개의 기능
  - ④ 날개 위와 아래에서의 압력차
  - ⑤ 날개 위 공기의 속도가 날개 아래 속도와 다른 이유
- 07** 주어진 문장은 여러분이 직접 양력이라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종이 띠를 잘라서 띠의 한쪽 끝을 잡고 입술 가까이 대고 서서히 종이 위로 균등하게 바람을 불어 주면 띠의 다른 쪽 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는 내용의 (C)가 바로 뒤에 이어지고, 종이 띠가 올라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A)가

이어진 후, 원리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B)가 마지막에 오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 08** 연을 날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연을 자신의 뒤에 두고 달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바람이 충분히 강한 하늘로 연이 올라가게 되면 연이 떠 있게 될 것이고 계속 달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keep(계속 ~하게 하다)을 stop(멈추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9** 주어진 문장은 '이것은 양력을 만들어 내고 연을 위로 밀어 준다'는 내용으로 이 문장의 주어 This는 연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 양력을 만드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연을 자신의 뒤에 둔 채로 뛰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내용 뒤인 ②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10** 빈칸 바로 앞에 있는 this condition이 연이 계속 날기 위해서 양력의 양과 중력의 양이 서로 같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③ '그러한 힘이 서로 균형을 맞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여러분의 연은 통제불능이 된다
  - ② 연은 느린 속도로 떨어진다
  - ④ 여러분은 연이 점점 더 높이 가도록 할 수 있다
  - ⑤ 중력은 양력보다 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11** 연이 하늘에서 계속 날기 위해서 양력과 중력이 같아야 하고 추력과 항력이 서로 같아야 하지만, 이 네 가지 힘 모두가 똑같을 필요는 없으므로 ⑤ '비행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힘들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비행기의 비행 원리들은 연에 적용된다.
  - ② 양력이라는 힘은 연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든다.
  - ③ 연이 계속 날기 위해서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
  - ④ 연을 위한 추력은 연의 실을 담김으로써 만들어진다.
- 12** 연이 양력과 중력, 추력과 항력간의 작용을 통해 비행기와 같은 방식으로 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연이 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들'이 적절하다.
- ① 연 날리기: 건전한 습관
  - ③ 어떻게 중력이 연 날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 ④ 바람과 중력 사이의 균형
  - ⑤ 달리기가 연 날리기에 미치는 영향
- 13** 우리가 종이 띠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은 공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a) 양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연)이 계속 하늘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것(양력)의 양은 중력의 양과 (b) 같아야 한다.
- |                 |                   |
|-----------------|-------------------|
| ② 양력 ..... 관계없는 | ③ 압력 ..... 관계된    |
| ④ 추력 ..... 동일한  | ⑤ 추력 ..... 비교할 만한 |
- 14** 방패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다른 나라의 연들과는 달리 방패연에는 가운데 등근 구멍이 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연의 정면에 있는 공기가 미는 힘은 바람의 일부가 구멍을 통해 뒤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크게 감소한다는 내용으로 구멍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B)가 이어진 후, 이 때문에 연을 빨리 돌리는 것이 가능하며 구멍으로 인해 강풍에 연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A)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 15** 빈칸 뒤에 구멍으로 인해 공기가 미는 힘이 줄어들게 되며 구멍이 없으면 연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공기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 ③ 그 연의 중력을 감소시킨다
  - ④ 그 연이 안정적으로 날지 못하게 한다
  - ⑤ 그 연을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만든다
- 16** 방패연에 대한 설명으로 직사각형 연은 전통적으로 5개의 대나무살로 만들어지며 전통 한지를 붙인다고 했으므로 ① '그것은 전통적으로 5개의 대나무살과 전통적인 한지로 구성된다.'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② 그것의 너비는 항상 전체 비율에서 그것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
  - ③ 가운데의 구멍은 연이 바람의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만든다.
  - ④ 그것은 구멍 때문에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기 어렵게 만든다.
  - ⑤ 그것은 가운데에 연 너비의 절반이 반지름인 등근 구멍이 있다.

- 17 한국의 방패연에는 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구멍이 연의 한가운데에 있어 다른 나라의 연들과 구별된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⑤ '한국 방패연의 독특한 특징들'이 적절하다.
- ① 한국 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      ② 방패연을 만드는 과정  
③ 한국에서 연을 날리는 것의 의미      ④ 세계에서 방패연의 역사
- 18 ②는 '연'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꼬리'를 가리킨다.
- 19 꼬리의 길이에 따라 연이 어떻게 나는지가 달라지며,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알아서 지혜롭게 알맞은 길이로 꼬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적당한 길이를 가진다'가 적절하다.
- ① 가능한 한 가볍다      ③ 전체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  
④ 전체 폭보다 더 짧다      ⑤ 그것의 제작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 20 (A)적당한 길이의 꼬리는 비행중인 연의 (B)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① 자연스러운 ..... 속도      ② 자연스러운 ..... 힘  
③ 평균 ..... 안정성      ④ 적당한 ..... 속도
- 21 적절한 길이의 연 꼬리가 연이 안정적으로 나는 것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⑤ '연을 날릴 때 꼬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적절하다.
- ① 연 꼬리의 다양한 종류  
② 멋진 연 꼬리를 만드는 과정  
③ 강하고 멋진 연을 만드는 비결  
④ 실을 이용하여 연에 꼬리를 묶는 방법
- 22 빙칸 뒤에 전기가 새를 통과해서 흐르고 감전될 것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빙칸에는 감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인 ⑤ '새가 전압이 다른 두 전선에 발을 둔 채로 서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갑작스런 감전이 있다  
② 전압의 양이 빠르게 증가한다  
③ 새가 같은 선에 서 있는 또 다른 새를 건드린다  
④ 전기가 새가 서 있는 전선 위를 지나간다
- 23 주어진 문장은 '그러니 전깃줄 근처에서 연을 날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으로, 전깃줄에 걸린 연이나 풍선을 만졌을 때 감전된다는 내용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4 기초 과학이 여러분을 전기 근처에서 안전하게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내용은 아는 만큼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부주의한 행동을 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⑤ '여러분이 기초 과학을 안다면 전압이 다른 전선을 만지는 것이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을 것이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전압차가 전기가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② 새는 전압이 다른 두 지점을 건드릴 때 감전된다.  
③ 전기는 새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통해서 흐를 수 있다.  
④ 만일 여러분이 전선에 걸려 있는 연이나 풍선을 만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 25 (A)같은 전압을 가진 전선 위에 서 있는 새가 감전되지 않는 반면에, 전선에 걸린 자신의 연을 만지는 사람은 전압 (B)차이 때문에 전기에 감전될 것이다.
- ① 다른 ..... 유사성      ② 다른 ..... 차이  
③ 임의적인 ..... 유사성      ④ 같은 ..... 유사성

## Lesson 08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32~139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④
07 ②	08 ④	09 ④	10 ④	11 ④	12 ②
13 ④	14 ⑤	15 ⑤	16 ①	17 ③	18 ⑤
19 ④	20 ①	21 ④	22 ②	23 ②	24 ③
25 ②					

- 01 '그것은 바로 ~이다'라는 It is ~ that 강조 구문이므로 what을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2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 줄다리기는 단순히 학교 스포츠가 아닙니다'라는 의미로 However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 뒤에는 줄다리기가 학교 스포츠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줄다리기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므로 ② '상대팀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당긴 팀이 진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줄다리기는 더 이상 올림픽 경기의 일부가 아니다.  
③ 줄다리기 참가자들은 당기기 시작하기 전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④ 민지는 줄다리기 동안 그녀가 느꼈던 긴장, 기쁨, 실망을 잊을 수 없다.  
⑤ 유네스코는 줄다리기를 그것의 세계 무형 문화유산의 목록에 등재했다.
- 04 줄다리기가 학교 운동회에서 절정을 이루는 학교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⑤ '발표의 주제인 줄다리기의 우수함을 설명하기 위해'가 적절하다.
- ① 학교 체육 대회에서 줄다리기의 채택을 제안하기 위해  
②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흥분을 공유하기 위해  
③ 학생들이 줄다리기가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을 돕도록 요청하기 위해  
④ 학생들이 학교 체육 대회 동안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 05 줄다리기가 사람들에게 협동하는 것을 돋우고 지역사회와 화합과 통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많은 마을들이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흥미진진한 축제로 발전시켰다는 내용으로 perished(못쓰게 했다, 죽었다)를 cherished(소중히 여겼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6 주어진 문장은 줄다리기 의식에 포함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므로, 줄다리기 의식에서 일련의 행동이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문장 뒤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7 동국여지승람에서 벼농사가 훈했던 한국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폭넓게 인기 있었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났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한국의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② '한국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한국에서 줄다리기 전통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③ 한국 사람들은 줄다리기를 운동뿐만 아니라 의식으로 여겼다.  
④ 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줄다리기에서 사용될 냇줄을 만들어야만 했다.  
⑤ 한국에서, 줄다리기는 협동과 조화의 정신을 발달시키는 것을 도왔을지도 모른다.
- 08 줄다리기의 전통과 최초의 기록 등을 소개하며 그것이 사람들이 협동하도록 돋우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켰다는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는 ④ '줄다리기의 역사적인 기록과 사람들의 협동을 위한 기여'가 적절하다.
- ① 줄다리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찬양론  
② 줄다리기의 기원과 그것의 오래되고 독특한 역사  
③ 줄다리기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첫 번째 공식 문서  
⑤ 화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통합으로의 상징인 줄다리기
- 09 빙칸 뒤에서 영산과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냇줄과 감내 줄다리기에 사용된 냇줄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빙칸에는 ④ '지역마다 모양과 디자인에서 다양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지역 미신의 상징이다  
②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③ 그것들이 사용되는 정확한 시기를 보여 준다  
⑤ 많은 초자연적이고 이상한 현상들을 반영한다
- 10 줄다리기에서 쓰인 냇줄이 특별한 힘을 갖는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줄다리기 후에 냇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집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④ '집에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숯을 집 문 위에 걸어둔다'는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다.
- 11 ①②③④는 모두 줄다리기 냇줄을 작은 조각으로 자른 smaller pieces를 가리키지만 ⑤는 some people을 가리킨다.
- 12 줄다리기 냇줄은 그것들이 사용되는 (B)지역에 따라서 (A)다양한 모양과 디자인을 가진다.
- ① 다양한 ..... 방법들      ③ 유사한 ..... 이유들  
④ 흔한 ..... 지역들      ⑤ 다른 ..... 기간들
- 13 감내 줄다리기 참가자들이 더 많은 게를 잡고 싶은 소망을 담아 줄다리기 냇줄을 게 모양으로 만드는 내용이므로 ④ '감내에 사는 사람들이 게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한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슬라이드는 몇몇 줄다리기 경기에서 사용되는 밧줄의 사진 두 장을 보여 준다.
- ② 영산 줄다리기에 사용된 밧줄에 달린 작은 밧줄들은 지네의 발처럼 보인다.
- ③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사용된 밧줄의 모양은 감내 줄다리기에서 사용된 것과 다르다.
- ⑤ 줄다리기 참가자들은 줄다리기에서 사용된 밧줄이 특별한 힘을 갖는다고 생각 한다.
- 14** 줄다리기 참가자들이 줄다리기에서 사용된 밧줄에 특별한 힘 있다고 믿어서 줄다리기 후 밧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가져간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⑤ '줄다리기에서 사용된 밧줄: 단순한 밧줄이 아니다!'가 적절하다.
- ① 줄다리기의 과거 전통들
  - ② 단지 밧줄인 당기는 밧줄
  - ③ 줄다리기를 위한 좋은 밧줄을 만드는 방법
  - ④ 줄다리기 축제: 개인적이 아닌 공적인
- 15**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했을 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에 이어서, 줄다리기 밧줄의 크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길고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C)가 바로 뒤에 이어지고, 동호가 속한 팀이 이겼는데 팀은 마을에 따라 나눠졌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후, 어느 팀이 이기든 마을에 평화나 풍년을 가져온다면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한 것은 멋진 일이며 줄다리기가 재미있었다는 내용의 (A)가 마지막에 오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 16** 줄다리는 여러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경기이고, 마을에 평화나 풍년을 가져오기 위해 서로 협동한다는 내용이므로 competition(경쟁)을 cooperation(협력)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7** 어느 팀이 이기든 마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줄다리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③ '상대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한 팀이 상대팀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 ② 어느 팀이 이기는가는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 ④ 긴 밧줄을 당기는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 ⑤ 경기를 이기는 비결은 경쟁 정신이다.
- 18** 빈칸이 있는 문장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역접의 연결어 However로 시작하고 한국의 줄다리기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줄다리기가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이 아니라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⑤ '구분되는'이 가장 적절하다.
- ① 흥분시키는
  - ② 흔한
  - ③ 고무시키는
  - ④ 과학적인
- 19** 동호는 자신이 속했던 수하팀이 이겨서 마을에 풍년이 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뻤다는 내용이므로 ④ '동호가 자신의 팀의 패배에 신경쓰지 않았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동호가 지난 봄에 방문했던 곳은 바로 당진이었다.
  - ② 동호는 줄다리기에 사용된 거대한 밧줄을 보고 놀랐다.
  - ③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서 쟁던 팀은 바로 수상팀이었다.
  - ⑤ 동호는 줄다리기 전통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 20** 줄다리기가 협동 정신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이며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해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① '줄다리기'에 의해 고무된 단체 정신'이 적절하다.
- ② 줄다리기 축제의 다양한 종류들
  - ③ 기지시 줄다리기에서의 쓰라린 패배
  - ④ 전통적인 라이벌: 수상과 수하
  - ⑤ 농사: 한국에서 기본적인 경제 활동
- 21**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하는 국제 조직이 매년 줄다리기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며 줄다리기가 다시 올림픽 경기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흐름이므로 excluded(제외된)를 included(포함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2** (a) 빈칸 뒤에 앞서 언급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므로 빈칸에는 화제의 전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연결어 In fact(사실)가 적절하다.
- (c) 빈칸 앞에서 한 국가가 여러 줄다리기 팀을 올림픽에 보낼 수 있다고 했고 빈칸 뒤에 미국이 줄다리기 메달들을 모두 획득했다는 예시가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어 For example(예를 들어)가 적절하다.

- ① 사실상 …… 게다가
  - ④ 요약하면 …… 결론적으로
  - ③ 요약하면 …… 게다가
  - ⑤ 게다가 …… 예를 들어
- 23** 주어진 글은 줄다리기가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 행사이거나 단체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돋는 어른들의 운동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줄다리기는 올림픽 경기 중 하나였다는 내용이므로 흥미롭게도 한 나라가 올림픽에 여러 팀을 보낼 수 있었다는 내용의 (B)가 바로 뒤에 이어지고, 이와 관련된 추가 예시를 제시하고 한 국제 단체가 올림픽의 진흥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의 (A)가 이어진 후, 그 국제 단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C)가 마지막에 오는 순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4** 한 국제 단체가 매년 줄다리기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줄다리기가 다시 올림픽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므로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③ '진흥'이 적절하다.
- ① 분석
  - ② 연구
  - ④ 제한
  - ⑤ 제거
- 25** 1900년에서 1920년까지 줄다리기가 올림픽 종목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② '줄다리기는 19세기에 올림픽 경기 중 하나였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사람들은 보통 줄다리기가 단체 정신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③ 올림픽 개최국이 1904년과 1908년 줄다리기 메달 모두를 획득했다.
  - ④ 한 국가에서 몇 개의 줄다리기 팀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곤 했다.
  - ⑤ 줄다리기 세계 선수권 대회가 매년 개최된다.

## Lesson 07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40~147

- 01 Have you ever wondered what makes a kite fly, or what a kite and an airplane have in common?
- 02 ① → that, ⑤ → is      03 makes the airplane fly
- 04 (A) weight (B) lift (C) drag (D) thrust
- 05 The wings are shaped so that air has to travel faster over them than under them.
- 06 (A) lower (B) higher    07 decreases
- 08 ① → The other, ③ → where, ④ → provides
- 09 (1) the air blown out over the top of the paper  
       (2) 종이 위쪽을 넘어 불어진 공기
- 10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run with it behind you
- 11 (1) 힘들이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양력과 중력의 양이 같아야 함  
       (2) 추력과 항력이 동등해야 함
- 12 The Science of Flight Applied to Both a Kite And Airplanes
- 13 still      14 ① → flown, ② → which
- 15 It were not for the hole
- 16 circular hole in the center, controls, damaging
- 17 (1) five bamboo sticks (2) traditional Korean paper  
       (3) turn the kite quickly
- 18 Uniqueness      19 diameter
- 20 ① → (to) make, ⑤ → made
- 21 allowing it to go high without rolling
- 22 (A) stability (B) length (C) added
- 23 has to do with how electricity works
- 24 electric shock
- 25 voltage difference between a power line and ground

- 01 현재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인 Have you ever wondered로 문장을 시작하고, 간접의문문 what makes a kite fly와 what a kite and an airplane have in common이 등위접속사 or로 이어진 병렬 구조이다. 첫 번째 간접의문문에서 what이 의문사이자 주어이므로 what 뒤에 바로 동사 makes가 오며 두 번째 간접의문문에서는 a kite and an airplane이 주어이므로 의문사 뒤에 동사가 아닌 주어가 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02** ①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며 보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므로 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신하므로 will be를 is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타동사 involve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 형태인 are involved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③ 앞에 있는 복수명사 wings를 대신하는 대명사이므로 them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④ 뒤에 오는 현재분사 pulling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 constantly의 쓰임은 적절하다.
- 03** 양력, 중력, 추력, 그리고 항력이라는 네 가지 힘에 의해 연과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비행의 과학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므로 빈칸에는 ‘비행기가 날게 만든다’가 적절하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를 makes로 쓰는 것과 makes의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인 fly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 04** 양력이 중력보다 더 클 때 비행기가 올라가고 추력이 항력보다 더 클 때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 (A) 중력이 (B) 양력보다 더 작을 때, 비행기는 상승하고, (C) 항력이 (D) 추력보다 작을 때 비행기는 앞으로 움직인다.
- 05**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 동사형인 are shaped로 써야 하고, ‘~하도록’은 ‘so that + 주어 + 동사’ 구문을 사용하여 so that air has to travel로 쓸 수 있다. 전치사구 over them과 under them이 비교급 표현 faster than에 의해 비교되고 있음에 유의한다.
- 06**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공기의 속도 증가가 압력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했으므로, 날개 위에서 더 빠르게 지나가는 공기가 압력의 감소를 만들고 날개 아래에 서의 압력이 더 높게 되면서 양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7**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르면 공기의 속도 증가가 압력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했으므로, 액체가 가속될수록 액체의 압력이 감소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는 ‘감소한다’는 의미의 decrease가 적절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decreases로 써야 함에 유의한다.
- 18세기 스위스 수학자였던 Daniel Bernoulli는 (공기와 같이) 액체가 속도를 올릴 때 그 액체의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08** ① 종이 띠의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개이므로 나머지 한 쪽 끝을 나타내는 The other로 고쳐 써야 한다.
- ③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며 장소를 나타내는 the sky가 선행사이므로 관계부사 where로 고쳐 써야 한다.
- ④ 3인칭 단수인 the tension을 주어로 하는 동사 자리이므로 to provide를 provides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일반동사 flies를 대신하는 대동사이므로 does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⑤ to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a kite가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to remain의 쓰임은 적절하다.
- 09** its pressure가 the still air under the paper와 비교되고 있으므로 밑줄 친 (A)는 the still air under paper와 반대되는 대상인 the air blown out over the top of the paper임을 알 수 있다.
- 10** 가주어-진주어 구문이므로 가주어 it이 문장 맨 앞에, 진주어 to run이 문장 맨 뒤에 위치해야 한다. sometimes는 빙도부사이므로 be동사 뒤에 위치해야 하며, 진주어 to run을 수식하는 with 분사구문이 to run 뒤에 위치한다. with 분사구문은 「with + 목적어 + 전치사구」로 표현하며 ‘목적어를 ~에 둔 채’ 정도로 해석 할 수 있다.
- 11** 글의 마지막 부분에 연이 날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힘들이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양력과 중력의 양이 같아야 한다는 것과 추력과 항력도 동등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 12** 연이 비행기가 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날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The Science of Flight Applied to Both a Kite And Airplanes(연과 비행기 모두에 적용되는 비행의 과학)’이 적절하다. 과거분사 Applied가 The Science of Flight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 13** still(정지한):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는
- 14** ① 동사 자리가 아니며 문맥상 연들이 날려지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 flow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 없고,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이므로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 ③ 주어가 명사절 What this hole does이며 명사절 내에서 What을 단수 취급하여 does를 사용했으므로, 문장 전체 동사도 단수동사인 is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④ allow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사용하므로 to turn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⑤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하고, 문장 내에서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끌어야 하므로 what의 쓰임은 적절하다.
- 15** Without은 if절을 대신하여 가정법 과거와 과거완료로 쓸 수 있다. 밑줄 친 표현에서 문장의 동사가 would not be이므로 가정법 과거 문장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없다면’의 의미이므로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쓸 수 있다.
- 16** 방패연이 다른 나라의 연과 다른 점은 가운데 원형의 구멍이 있는 것이며, 이 구멍의 역할은 공기를 조절하고 강한 바람에 연이 쉽게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방패연은 지름이 연의 가로 길이의 절반인, 원형 구멍이 중앙에 있는데, 그것은 공기를 조절하고 강한 바람이 연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 17** Lucy: 무엇을 하고 있니?
- Jacob: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연인 방패연을 만들고 있어.
- Lucy: 멋져 보인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니?
- Jacob: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것을 만들 때, 그들은 종종 (1)5개의 대나무 막대 기와 (2)전통 한지를 사용해.
- Lucy: 이것은 뭐야? 왜 구멍을 만들었어?
- Jacob: 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해. 그것은 바람이 구멍을 통과해서 뒤로 빠져 나가게 함으로써 공기를 조절해. 그래서 우리는 (3)연을 빠르게 돌릴 수 있어.
- 18** 방패연이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연과는 달리 독특함이 있다 는 내용이므로 형용사 unique를 명사 uniqueness로 바꿔 쓸 수 있다.
- 세계에 있는 나머지 다른 연들과 비교될 때 방패연의 독특함
- 19** diameter(지름): 둥근 물체의 가운데를 지나면서 둥근 물체를 가로질러 그어질 수 있는 직선의 길이
- 20** ①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이나 to부정사를 쓰므로 (to) make로 고쳐 써야 한다.
- ⑤ 과거시제인 knew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별렬 관계이므로 made로 고쳐 써야 한다.
- ② 동사 fly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 stably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③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의 ‘not only[just] A but also B」 구문이므로 just의 쓰임은 적절하다.
- ④ 조동사 will 뒤에 연결된 동사원형 make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별렬 관계이므로 동사원형인 roll의 쓰임은 적절하다.
- 21** 긴 꼬리는 연이 잘 날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흔들리는 것 없이 높이 가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하면서’라는 의미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므로 allow를 현재분사인 allowing으로 쓰고, allow는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를 사용하며, 전치사 without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 한다.
- 22** 연에 알맞은 길이의 꼬리를 붙임으로써 연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 연의 (A)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B) 길이를 가진 꼬리가 연에 (C) 더 해질 수 있다.
- 23** 전선 위에 앉아 있는 새가 왜 감전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빈칸 뒤에 전류는 전압차가 발생할 때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전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와 관련이 있다’는 have to do with로 표현하고, 주어가 This이므로 have를 단수동사 has로 바꿔 써야 하며, with 뒤에는 간접의문으로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인 how electricity works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4** 빈칸 앞에서 전기가 새의 몸을 통과해 흐른다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감전’이 적절하다.
- 25** 지면과 전선의 전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이 높은 전선에서 전압이 낮은 지면으로 흐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전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A: 만일 연이 전선에 걸리고 내가 지면에 서 있으면서 그 연을 꺼내려고 시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B: 만일 너가 그렇게 하면 너는 (전기) 충격을 받을꺼야.  
A: 정말? 그것은 어떻게 작용하는거지?  
B: 전선과 땅 사이의 전압 차이 때문에, 전류가 너의 전신으로 흘러 들어갈꺼야.

## Lesson 08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48~155

- 01 ⑥ → be, ⑦ → were  
02 it is *juldarigi* that often highlights a school sports day  
03 (1) victory → defeat (2) Tangible → Intangible 04 heritage  
05 might have been a perfect way to help people cooperate and promote the harmony and unity of the community  
06 (1) should → must (2) despised → cherished  
07 (a) (o)rigin (b) (r)ole  
08 (A) common[popular] (B) a series of actions  
09 ⑥ → attached, ⑦ → them  
10 vary in shape and design from region to region  
11 (a) smaller pieces (b) people in some areas  
(c) *Gijisi juldarigi* ropes  
12 are believed to bring a good harvest, health, and peace to their families  
13 The Belief That the *Juldarigi* Rope Provides a Special Power for People Who Has It  
14 ⑧ held ⑨ is ⑩ preparing  
15 뱃줄이 길이는 약 200미터였고, 두께는 1미터, 무게는 40톤을 넘었기 때문이었다.  
16 Despite → (Even) Though, was won → won  
17 What is important is for us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our traditional *juldarigi* for future generations.  
18 It looked like a centipede.  
19 (1) uncompetitive (2) cooperation 20 *suha*  
21 (a) bring a good harvest to the country  
(b) bring peace to the country  
22 (1) 매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  
(2) 줄다리기가 다시 올림픽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23 ⑪ is dedicated ⑫ included 24 disgrace → glory[grace]  
25 a country could send more than one team to the Olympics

- 01 ⑥ ‘~하곤 했다’는 「used + to부정사」로 표현하므로 동사원형인 be로 고쳐 써야 한다.  
⑦ 문장의 주어가 복수형인 The moments이므로 복수동사인 were로 고쳐 써야 한다.  
⑧ 문맥상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며 어법상으로도 타동사 give 뒤에 목적어가 있으므로 현재진형형 are giv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⑨ 선행사 the tension을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므로 which의 쓰임은 적절하다.  
⑩ 수식을 받는 명사 facts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체이므로 현재분사 interesting의 쓰임은 적절하다.  
02 「It + be동사」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표현을 쓰고, that 뒤에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쓰는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장의 시제가 현재이므로 be동사는 현재시제인 is를 쓰는 것에 유의한다.  
03 (1) 줄다리기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므로 victory(승리)를 defeat(패배)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2) 줄다리기는 유형 문화유산이 아니라 무형 문화유산이므로 Tangible(유형의) 을 Intangible(무형의)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4 heritage(유산):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어 오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져 온 모든 자질, 전통, 또는 특징들  
05 ‘~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might have been 뒤에 보어인 a perfect way를 쓰고 way를 수식하는 to부정사구를 이어서 쓴다. to부정사의 동사원형 help와 promote가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며 promote의 목적어 harmony와 unity 또한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임에 유의한다.  
06 (1) 줄다리기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줄다리를 해 왔음에 틀림없다는 내용이므로 should를 must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should + have + 과거분사」는 ‘했어야 했는데’라는 의미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낸다.  
(2) 줄다리기가 협동하도록 돋고 공동체의 조화와 통합을 증진시키는 완벽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소중하게 여겨왔다는 내용이므로 despised(경멸했다)를 cherished(소중히 했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줄다리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한국 농업 공동체의 조화와 통합을 증진시켰던 줄다리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의 글이다.  
줄다리기의 (a)기원과 한국 농업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단결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줄다리기의 (b)역할  
08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줄다리기는 쌀 농사 지역에서 (A)흔했고[인기 있었고],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B)일련의 행동들로 구성된 의식이었다.  
09 ⑥ 「with + 목적어 + 목적격보어」 구조의 with 분사구문으로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인 attached로 고쳐 써야 한다.  
⑦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the pieces이므로 복수형인 them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⑧ 문장에서 like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의문대명사 What의 쓰임은 적절하다.  
⑨ 주어 The rope와 동사 make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is made의 쓰임은 적절하다.  
⑩ help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과 to부정사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to have의 쓰임은 적절하다.  
10 줄다리기에서 쓰이는 뱃줄은 모양과 디자인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내용의 글로 ‘지역마다’는 from region to region으로 표현한다.  
11 (a) 줄다리기 게임이 끝난 후 뱃줄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smaller pieces(더 작은 조각들)를 가리킨다.  
(b) 조각을 지붕 위로 던지는 주체이므로 앞 문장에 나온 people in some areas(일부 지역의 사람들)를 가리킨다.  
(c) 기지시 줄다리기 뱃줄이 그것을 소유하는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졌다고 했으므로 *Gijisi juldarigi* ropes(기지시 줄다리기 뱃줄들)를 가리킨다.  
12 밑줄 친 문장을 수동태 전환 후 가주어 구문으로 바꿔 쓰면 It is believed that these ropes bring a good harvest, health, and peace to their families. 가 된다. 여기서 that절의 주어를 가주어 it의 위치로 이동시키면 that이 생략되고 that절의 동사는 to부정사로 바꿔야 된다.  
13 사람들이 줄다리기 뱃줄이 풍년, 건강, 평화를 가져오고 부부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유통을 치료하며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글이다. The Belief 뒤에 동격의 접속사 That이 오는 구조임에 유의한다.  
줄다리기 뱃줄이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을 제공한다는 믿음  
14 ⑪ 문장의 동사는 took이므로 동사 자리가 아니며 문맥상 the *Gijisi Juldarigi* Festival이 당진에서 개최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held로 고쳐 써야 한다.  
⑫ 간접의문문 which team wins가 주어이므로 be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인 is로 고쳐 써야 한다.  
⑬ while we were preparing이라는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전환되면서 being 이 생략된 것이므로 prepar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15 밑줄 친 (A) 뒤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이 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16 Despite는 전치사로 뒤에 절이 올 수 없으므로 부사절을 이끄는 양보의 접속사 (Even) Though로 고쳐 써야 하며, win이 ‘이기다’는 의미의 자동사로 쓰였으므로 수동태로 전환될 수 없고 우리 팀이 이긴 것으로 능동의 의미이므로 was won을 과거형 won으로 고쳐 써야 한다.

17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이며 What절은 단수 취급하므로 What절 내에서의 동사와 문장 전체의 동사를 단수동사인 is로 쓴다. inherit과 develop이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임에 유의한다.

18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인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and pulled the “centipede” rope to win.에 밧줄에 대한 묘사가 제시되어 있다.

질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서 쓰였던 밧줄은 어떻게 생겼는가?

답변: 그것은 지네처럼 생겼다.

19 줄다리기에서 어느 팀이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줄다리기가 협력의 정신에서 행해지는 전통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1)에는 be동사의 보어인 형용사가 들어가야 하고 문맥상 ‘비경쟁적’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uncompetitive가 적절하고, (2)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므로 명사형인 cooperation이 적절하다.

줄다리기는 사람들에게 (B)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래 의도적으로 (A) 비경쟁적이다.

20 글쓴이의 팀이 이겨서 글쓴이가 풍년이 오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했으므로 글쓴이는 수하팀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지문으로부터, 우리는 글쓴이가 수하팀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수상팀과 수하팀으로 나눠 줄다리를 하는데 전자가 이기면 나라가 평화롭고, 후자가 이기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때 the former team이 수상팀, the latter team이 수하팀을 지칭함에 유의한다.

줄다리기 축제에서 어느 팀이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만일 수하팀이 이기면 그것은 (A) 그 나라에 풍년을 가져오고, 수상팀이 이기면 그것은 (B)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2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줄다리기의 진흥에 헌신하는 국제 조직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줄다리기가 다시 올림픽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3 ① 타동사 dedicate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 동사형을 써야 한다. 「be dedicated + to부정사」는 ‘~에 전념하다’라는 의미로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인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 단수이므로 be동사는 is로 고쳐 써야 한다.

⑤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get은 목적격보어로 to부정사나 과거분사를 쓸 수 있는데 문맥상 목적어와 목적격보어가 수동의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included로 고쳐 써야 한다.

24 국제 조직이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올림픽 종목이었던 줄다리를 다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게 만들어 줄다리기가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되길 소망한다는 내용이므로 disgrace(불명예)를 glory(영광)나 grace(품위)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25 한 나라에서 올림픽 줄다리기 경기에 한 팀 이상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여러 개의 매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문: 왜 한 나라가 올림픽 줄다리기 경기에서 여러 개의 매달을 획득할 수 있었는가?

대답: 한 나라가 올림픽에 한 팀 이상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The girl's room decorated with spooky things is not scary at all.

12 (1) crossed (2) spilled (3) visiting

13 (1) named (2) covered (3) called

14 (1) surrounding → surrounded (2) unlocking → unlocked

15 ④ 16 ② 17 surprising → surprised

18 (1) with his tongue hanging out (2) with their paintings evaluated

19 ③ 20 ③ 21 ④ 22 ④ 23 ③ 24 ②

25 ③ 26 ④

27 If it were not for the hole

28 allowing it to go high without rolling very much

29 ④ 30 ④

01 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수단: 교통수단(transportation)

⑥ 보통 꼬인 셈유로 만들어져 무언가를 묶는 데 사용되는 얇은 줄: 띠, 줄(string)

⑦ 기체나 액체를 통과하는 무언가의 앞으로 향하는 움직임에 반대되는 힘: 항력(drag)

⑧ 누군가나 무언가에 맞서 자신의 자리나 입장을 유지하다: withstand(견디다)

02 equivalent는 ‘맞먹는, 동등한’이라는 의미로 equal과 바꿔 쓸 수 있다.

Tim은 2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② 더 나은 ③ 더해진 ④ 최악의 ⑤ 고르지 않은, 평평하지 않은

03 ‘무언가를 눌러서 발생되는 힘’에 해당하는 단어는 pressure(압력)이다.

① 그 원피스의 독특함은 어떤 체구의 여성에게나 맞는다는 것이다.

② 그 비행기의 프로펠러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대하다.

③ 나는 그가 무엇이 주요한 문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반대했다.

④ 그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므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⑤ 동전을 만들 때 압축기를 사용하여 특정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04 ④ 같은 위치를 유지하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정지한(still)

⑥ 원의 형태인; 동근: 원형의(circular)

⑦ 둘다, 회전하다 …… 원형의 ③ 둘다, 회전하다 …… 직사각형의

④ 고요한, 정지한 …… 직사각형의 ⑤ 고요한, 정지한 …… 둘러싸다

05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알려 주는 앱이 GPS를 이용해서 정보가 매우 정확하다는 흐름이므로 inaccurate(부정확한)를 accurate(정확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6 빙칸 바로 뒤에 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빙칸에는 ④ ‘내가 보기에는 지하철이 더 빠를 것 같아.’가 적절하다.

① 내가 보기에는 택시가 더 빠를 것 같아.

② 내가 보기에는 너는 버스를 타야할 것 같아.

③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

⑤ 내가 보기에는 택시나 지하철이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07 ‘(교통이) 정체된’은 bumper to bumper로 표현하고, ‘도로에’는 on the road로 표현한다.

08 ‘~에 대해 궁금하다’는 I'm curious about ~으로 표현하고,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표현한다.

09 빙칸 뒤에 각각 왜 바람이 세게 부는지, 어떻게 높은 건물들이 강한 바람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빙칸에는 ④ ‘~에 대해 궁금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에 대해 신경 쓰여

② 나는 ~을 몰라

③ 나는 ~에 대해 생각해

⑤ 나는 ~에 대해 걱정해

10 바람이 강하게 부는 이유가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남자의 말에 ④ 그런데 건물은 바람을 막아 줘야 하잖아, 그렇지? – ⑥ 바람이 고층 건물에 부딪칠 때, 건물의 낮은 부분으로 급격하게 내려오고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 ⑥ 그렇구나. 나는 고층 건물이 어떻게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지 궁금

## Lesson 07 적중 모의고사

p.156~165

01 ② 02 ① 03 ⑤ 04 ① 05 ④ 06 ④

07 The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the road.

08 I'm curious about why we can't hear any sound in space.

09 ④ 10 ④

11 (1) The key lost by her was found on the sofa by me.

(2) Students coming for the volunteer work picked up the trash on the street.

- 해. - ⑧ 사람들이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이것은 바람이 좀 더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줘.'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1 (1) 열쇠는 잃어버려진 것이므로 losing을 과거분사 lost로 고쳐 써야 한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 열쇠를 내가 소파 위에서 찾았다.
- (2)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므로 과거 동사 came을 현재분사 com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은 거리의 쓰레기를 주웠다.
- (3) 소녀의 방은 꾸며진 것이므로 decorating을 과거분사 decorated로 고쳐 써야 한다.  
으스스한 것들로 꾸며진 그녀의 방은 전혀 무섭지 않다.
- 12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crossed가 적절하다.  
그 소년은 다리를 끈 채로 만화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spilled가 적절하다.  
우유가 엎질러진 채로 흘러봤자 소용없다.
- (3)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visiting이 적절하다.  
내가 그 가방을 산 그 가게는 방문하는 손님도 없이 가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 13 (1) 강아지가 이름 붙여진 것이므로 과거분사 named가 적절하다.  
(2) 선물이 스티커로 뒤덮인 것으로 과거분사 covered가 적절하다.  
(3) 가스는 수소라 불리는 것으로 과거분사 called가 적절하다.
- 14 (1) 공원이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것으로 surrounding을 과거분사 surrounded로 고쳐 써야 한다.  
나는 시청 주변에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공원을 찾았다.
-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unlocked로 고쳐 써야 한다.  
Joshua는 그의 방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떠났다.
- 15 ⑤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bringing을 과거분사 brought로 고쳐 써야 한다.  
⑥ 그 종업원은 우리를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했다.  
⑦ 그의 손가락을 벽에 기댄 채 그의 팔은 그 앞에 뻗어져 있다.  
⑧ 몇 주 전에 계획된 깜짝 파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⑨ 나의 고양이는 배를 훔들면서 내 무릎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
- 16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waving이 적절하다.  
나는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에게 손을 훔드는 그 남자를 봤다.
- 17 주어인 그 소년이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surprised로 고쳐 써야 한다.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된 소년은 퍼붓는 빗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 18 (1)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 hanging이 적절하다.  
(2) 「with + 명사 + 분사」 구문으로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evaluated가 적절하다.
- 19 양력(lift), 중력(weight), 추력(thrust), 항력(drag)은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가지 힘이므로 빙칸에는 ③ '비행과 관련 있는 네 가지 주된 힘'이 적절하다.  
① 더 낮은 비행을 위한 네 가지 주된 힘  
② 더 높은 비행을 위한 네 가지 기본적인 힘  
④ 어디에나 포함된 몇 가지 힘  
⑤ 수영에 포함된 네 가지 기본적인 힘
- 20 (A)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러가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 주는 것으로 push를 현재분사 push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B) 사역동사 make는 목적격보어로 동사원형을 쓰므로 fly가 적절하다.
- 21 주격보어를 강조하기 위해 문두에 위치시키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도치구문이므로 ④가 적절하다.
- 22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이므로 blowing을 동사원형인 blow로 고쳐 써야 한다.
- 23 주어진 문장은 '띠의 다른 쪽 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띠의 다른 쪽 끝이 언급되었으므로 띠의 한 쪽 끝에 대한 내용 바로 뒤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4 연을 날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뒤쪽에 연을 둔 채로 뛰어야 하는데, 이것은 양력을 만들어 내고 연을 위로 밀어 준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down(아래로)을 up(위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5 (A) 연이 바람이 충분히 강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달리기를 멈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하는 것을 멈추다'는 의미의 「stop + 동명사」에 맞게 running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stop + to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다)  
(B) remain의 보어로 형용사를 쓰므로 flying이 적절하다.  
(C) 선행사가 없으므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 26 방언이 다른 연과 달리 연의 중앙에 구멍이 있어서 공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빙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④ '독특함'이다.  
① 무질서 ② 체계 ③ 이상함 ④ 상식
- 27 without을 이용한 가정법 구문으로 if절 대신에 쓸 수 있으며 「But for + 명사」, 「If it were not for + 명사」, 「Were it not for +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7단 어로 써야 하므로 「If it were not for + 명사」를 이용해 쓸 수 있다.
- 28 '~하면서'라는 의미는 분사구문을 이용하여 영작할 수 있으며 전치사 without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 29 연이나 풍선이 전깃줄에 걸려 여러분이 그 줄을 만진다면 감전된다고 했으므로 빙칸에는 ④ '여러분은 전깃줄 근처에서 연을 날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우리는 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② 여러분은 역동적인 것을 해야 한다  
③ 우리는 전기를 멀리해야 한다  
⑤ 우리는 환경오염 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
- 30 연이나 풍선이 전깃줄에 걸렸을 때 사람이 그 줄을 만진다면 감전된다고 언급했으므로 ④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Lesson 08 | 적중 모의고사

p.166~174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7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asting my own Gimchi.

08 I was really surprised that the food was delivered so quickly.

09 ⑤ 10 ③ 11 ③ 12 ③

13 (1) can't park → cannot have parked

(2) must be → must have been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It was Dr. Cooper that[who] solved one of the most difficult physics questions in the world.

19 ① 20 ⑧ must ⑥ was added 21 juldarigi

22 ④ 23 ④ 24 ③ 25 ⑤ 26 ④

27 Tug of war is not an Olympic event anymore.

28 ② 29 ④ 30 ⑤

01 ⑧ 사람이나 조직을 돋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주다: 기부하다(donate)

⑥ 누군가가 인상 깊은 행동을 해서 얻는 존경과 칭찬: 영광(glory)

⑦ 구기 경기, 특히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곳: 야구장(ballpark)

⑧ 무언가나 누군가에 대해 고려하거나 의견을 나타내다: ~라고 여기다(regard)

02 multiple은 '다수의'라는 뜻으로 numerous와 바꿔 쓸 수 있다.

우리의 생산품은 전국의 다수의 지역으로부터 배송된다.

① 혼신적인 ② 조화로운 ④ 지역의 ⑤ 무형의

03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자산이나 돈을 받다'는 inherit(상속받다, 물려받다)에 어울리는 영어풀이이다.

① 김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값진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② 당신은 돈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기부할 수 있다.

③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④ 나는 다음 세대가 왜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는지 이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 ⑤ 그는 가업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곧 매각했다.
- 04 ⑥ 지역(region): 다른 지역과는 정치, 지리, 또는 문화가 다른 넓은 지역  
⑥ 유산(heritage):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예술, 건축물, 전통, 그리고 믿음
- ① 들판 …… 조화  
③ 장소 …… 통합  
④ 장소 …… 유산  
⑤ 지역 …… 조화
- 05 ①②③⑥는 모두 ‘놀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④는 ‘나는 모두가 자기 팀을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서 정말 기뻤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 06 김치 만들기 축제에서 만든 김치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는 흐름이므로 sell(판매하다)을 donate(기부하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7 ‘~하는 것을 고대하다’는 ‘look forward to + (동)명사’로 표현한다.
- 08 ‘~에 놀랐다’는 I was surprised that ~을 이용하여 영작한다.
- 09 (A)는 한국에 온지 두 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에 놀란다는 흐름이고, (B) 또한 음식이 정말 많아서 놀랐다는 흐름이므로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surprised이다.  
① 지루한 ② 만족하는 ③ 우울한 ④ 피곤한
- 10 여자의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니?’라는 말에 ‘⑥ 응, 사람들이 먹는 방식. 접시와 그릇이 정말 많아. – ④ 식당에서 식사할 때를 말하는 거니? – ⑤ 음, 바로 그거야. 며칠 전에 나는 정말 놀랐어. 음식이 정말 많더라! – ④ 음, 요즘은 바뀌고 있지만 네가 아주 전통적인 식당에 간 것 같구나.’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1 ‘~했을지도 모른다, ~했었을 수도 있다’는 ‘c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그들이 결혼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다.  
→ 그녀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혼을 했었을 수도 있다.
- 12 ⑥⑦는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각각 what을 which[that]로, where를 when[that]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⑥ 큰 액수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 사람이 바로 그 영화배우였다.  
⑦ 나의 오빠가 어제 잠든 곳은 바로 소파였다.  
⑧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신경 쓴다.
- 13 (1) Penny는 지난밤에 그녀의 차를 여기에 주차했을 리가 없다. 그녀는 3일 전에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cannot have + 과거분사: ~이었을 리가 없다)  
(2) Bill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내가 전화했을 때 그는 바빴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 14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으로 각각 순서대로 when, who, whom, where가 들어갈 수 있다.
- 나의 자매와 형제들이 모두 모였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다.
  -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차를 나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
  - 내가 17년 전에 피아노 치는 방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Thomas 박사였다.
  - 매주 일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교회이다.
- 15 • might have + 과거분사: ~이었을지도 모른다  
• cannot have + 과거분사: ~이었을 리가 없다  
•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 should have + 과거분사: ~했어야 했다
- 16 ⑥⑦⑧는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의 that, ⑨는 kne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 ⑩는 지시형용사 that이다.
- ⑧ 어제 Sue의 집에서 꽃병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 Jack이었다.  
⑨ Benjamin은 그의 시계가 다른 사람들의 시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⑩ 저기 택시를 잡고 있는 저 남자를 봐.  
⑪ 우리 마을의 모든 곳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그 경찰관들이다.  
⑫ 매우 재밌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Sheldon이다.
- 17 ‘~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후회한다)’는 ‘should have + 과거분사’로 표현한다.  
그녀는 그를 도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후회한다. → 그녀는 그를 도왔어야 했다.
- 18 ‘…한 것은 바로 ~이었다’는 It was ~ that 강조 구문을 이용하고, ‘~ 중 하나’는 ‘one of the + 복수명사’로 표현한다.
- 19 주어진 문장은 ‘예, 정답은 줄다리기입니다.’라는 뜻으로 퀴즈에 대한 정답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⑪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0 ⑩ 줄다리기가 학교 운동회의 절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 봤음에 틀림없다는 흐름이므로 cannot을 must(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⑪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것이므로 added를 수동태 was added로 고쳐 써야 한다.
- 21 밀줄 친 this는 앞에서 언급한 줄다리기를 가리킨다.
- 22 줄다리기는 사람들이 협동하도록 돋고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완벽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흐름이므로 flawed(결함 있는)를 perfect(완벽한)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3 (A) says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B) 빙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빙칸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오므로 관계부사 where가 적절하다.
- 24 주어진 문장은 ‘경기가 끝나면,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밧줄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집으로 가져갑니다.’라는 뜻으로 바로 뒤에 그 조각들을 지붕 위로 던지거나 집의 문 위에 걸어 둔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⑫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5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수식하는 선행사가 the families이므로 owns를 복수동사 ow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6 올림픽 종목이었던 줄다리기를 다시 진흥시키기 위해 현신하는 국제 조직이 줄다리기가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를 희망한다는 흐름이므로 fade(바래다)를 regain(되찾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7 ‘줄다리기’는 tug of war로 쓸 수 있고, ‘더 이상 ~이 아니다’는 not ~ anymore로 표현한다.
- 28 주어진 문장은 ‘그것은 길이가 약 200미터, 두께는 1미터이고, 무게는 40톤이 넘었습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그것’은 밧줄을 가리키므로 밧줄의 크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내용 바로 뒤인 ⑬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9 (A)에는 It is[was] ~ that 강조 구문의 that이 적절하고, (B)에는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that이다.
- 30 동호가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경험한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⑮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전통 축제’가 적절하다.
- ① 기지시 현대 게임 축제
  - ② 기지시 김치 만들기 축제
  - ③ 기지시 게 잡기 축제
  - ④ 기지시 줄다리기 줄 만들기 축제